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외교부,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발표 실제 재외동포 언론에는 공표 않고 슬그머니 지나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을 기념해 수여하는 재외동포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천명했던 외교부가 실제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인 재외동포 언론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교부는 제10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후보자를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8월8일 밝혔다고 한국내 일부 언론과 월드코리아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한 재외동포 언론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달라스

의 뉴스코리아, LA 헤럴드 경제 등 미주의 주요 한인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과 관계자는 21일(한국 현지시간 22일) 보스톤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위한 의견수렴이 결국은 마녀사냥으로 변질돼 동포사회에 분열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일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한)국내 언론들은 “외교부 공지를 확인하고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공지사항을 검색한 결과 공개검증은 지난 8월 시작해 2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0일 마감됐다.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은 대다수의 재외동포들은 모르는 상태로 마감된 것이다. 실제로 재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을 기념해 수여하는 재외동포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천명했던 외교부가 실제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인 재외동포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

▶▶2면으로 계속

## 티보 플레이 TBO MBN 생방 론칭 기념 특별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 합법 TV의 선두주자 티보 플레이가 MBN 생방 송 론칭 기념으로 10월 한달동안 월 \$30불 한정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는 티보는 보스톤에서 월 \$34.99에 판매하고 있다.

북미주에서 약 4만여 가구의 시청자가 가입하고 있는 북미주 최대 콘텐츠의 티보플레이는 인터넷만 가입해 있는 한인이라면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TV이다.

초고화질의 품질을 자랑하는 티보플레이는 한국의 방송 3사를 비롯해 케이블 티비 등 다양한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티보 플레이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시청자가 편리할 때 골라서 보는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연합뉴스 및 MBN 채널까지 라이브 방송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MBN 채널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론칭 기념 특별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한국행 항공권  
**1 DAY SALE**

2016년  
**10월1일(토) 12PM - 7PM ET**

행사가격은 다음주 Enews를 통해 발표합니다.  
Enews 구독등록 방법 : IACE 행사에드 또는 하단의 QR코드

- ✓ 미주출발 - 인천행 항공권 ONLY
- ✓ 전화 상담/판매 ONLY
- ✓ 행사당일 예약 및 결제 조건

**IACE TRAVEL**  
전화상담: 1.617.424.8956

웹사이트: www.iace-korea.com  
이메일: info@iace-korea.com  
커뮤니티: 페이스북 IACEKOREA  
영업시간: 월-금 12PM - 9PM(ET)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kung@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까지 체계적 교육

FDart 학문판매 대리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보스톤 총영사관은 9월 16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지역 소재 유매스 엠허스트 뉴만 센터에서 순회 출장 영사업무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다

## 서부 뉴잉글랜드 지역 순회영사 업무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은 9월 16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엠허스트 지역 소재 유매스(UMass) 엠허스트 뉴만 센터에서 순회 출장 영사업무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다.

오전관 영사를 중심으로 한 영사관 직원들은 평소 장거리로 인해 총영사관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유학생들에게 비자, 병역상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영사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거주하는 김성

혁 전 평통회장은 “유학생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칭찬을 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보스톤에서 5명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계한인무역인협회(월드 옥타)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전 대회에서는 국내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확대를 꾀하는 친구맺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보스톤 대표로 안병학 옥타지회장과 한종규 씨가 참여하며, 차세대로는 안완기, 한효기, 그리고 한지우 씨 5명이 참가한다.

클 기사에서 보스톤 참가자가 남진병 씨 1명이라고 보도됐지만 보스톤 지회에 따르면 안병학, 피터 안, 우혜진, 전성기 씨 5명이 참가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상의 오류로 1명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정합니다. 지난 옥타 뉴욕지부 차세대 무역스 bostonkorean@hotmail.com

## 외교부 말뿐인 동포포상 공개검증

▶▶1면에 이어서  
외동포 공개검증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특히 외교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기 전 검증이 마녀사냥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한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부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정종한 씨는 외교부의 이번 후보 공개검증 과정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인들은 상대를 마녀사냥하는 사람들

면 극히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흉내만 내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레딩에 거주하는 최의성 씨는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때론 비방이 있을 수도 있고 칭찬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의견 수렴을 통해 옥석을 가려낼 때 진정한 재외동포 포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만큼 값진 것”이라며 “이왕 공개검증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하는 모습 좀 보여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지난 3월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국민 포상 전수식 모습.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은 유공 동포 시상에서 대표적으로 잡음이 없기로 유명한 지역중의 하나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한해 애쓴 한인들, 가을 햇살 툭툭 차고 놀아라”

보스톤 커먼 한국 페스티벌 진행 윤곽 드러나  
케이팝 댄스팀,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한국 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커먼에서 열리는 코리아 축제의 열개가 완성됐다. 케이팝 댄스 등 문화 공연과 태권도 그리고 먹거리 등이 한데 어울려 보스톤 지역에 최초의 한인 축제 현장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한인회가 10월 1일 토요일 주최하는 코리아 축제에는 10개의 태권도 팀의 시범공연, 2개의 보스톤 대학 케이팝 댄스팀, 2개의 사물놀이 팀, 1개 한국무용팀이 참가해 무대를 꾸미게 된다.

특히 BU의 한국 케이팝 동아리인 소리안과 같은 BU의 미국인 케이팝 동아리는 믹스(miXx)의 공연은 이번 한인 축제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12시에 열리는 오프닝 이벤트 직후 소리안과 믹스의 공연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소리안은 공연할 곡을 선정중이며, 믹스 측은 이날 참가 가능한 멤버를 확인 작업중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연 내용은 이번 주말 정도에야 가능하다는 게 양측 대외협력부의 얘기다.

태권도 시범은 이번 축제의 핵심이다. 10개 태권도 팀이 참가해서 각종 태권도 시범을 선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됐던 태권도 행사를 보스톤 커먼으로 옮겨 재연한다. 따라서 타임스퀘어의 태권도 공연을 못본 한인들이라면 보스톤에서도 그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사물놀이와 한국무용도 빠지지 않는다. 보스톤한인교회 하늘소리 사물놀이 팀이 참가해 11시 20분께 공연하며 한미노인회 사물놀이 팀이 오후 3시에 대한 사물놀이 공연을 진행한다. 김효인 씨의 한국무용 공연도 오전에 진행된다.

공연과 함께 음식 부스에서는 불고기와 밥을 판매하며 컵라면과 핫반, 아이스크림, 한국과자 및 음료수가 판매된다. 한인회 남진병 사무총장은 “축제에 참여하는 한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음식이 모자랄 가능성이 많으므로 스낵과 음료 등은 직접 준비해서 오면 좋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스톤 커먼의 다른 한 칸에서는 보스톤 야구회에서 참여해 쟁반 맞추기 등의 야구 행사를 진행하고 보스톤 축구회에서 참여해 미니 축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학교 협의회에서는 한복입어보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며 시민협회는 시민권 취득



이번 한인 축제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BU의 미국인 케이팝 동아리 믹스(miXx)의 공연

안내를 진행한다. 한국종이문화 재단에서는 종이접기 행사도 진행한다. 보스톤총영사관 부스에서는 한국 홍보 책자는 물론 한국 홍보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이 배포되며 한인회는 전라북도에서 보내온 한국 부채 300개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제공한 한국 태극기 1천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국의 민속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줄다리기 등이 준비된다. 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축제이니만큼 한인들이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남진병 사무총장은 비치 의자 등 앉아서 쉴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ditor@bostonkorea.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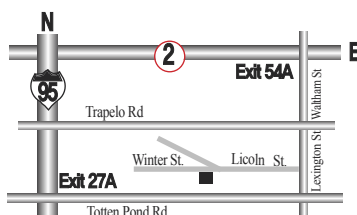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제4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미술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미술가들의 작품이 렉싱턴으로 모인다. 오는 10월 1일(토)부터 15일(토)까지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에서 전시되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미술전에는 총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회화, 조소, 섬유, 장신구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주관으로 매 해 가을마다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올해로 네 번째다. 한인 미술가들은 한미예술협회 미술전을 토대로 삼아서 서로의 작품을 알리고 격려하며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왔다.

올해 미술전 참여 작가들은 강달래, 김사울, 김수희, 김영숙, 김영아, 김희정, 박순득, 박혜영, 성은경, 유수례, 이재욱, 신영, 조미애, 지영신, 차원재, 최혜경, 한승희, 허선희, 허정, 황지영이다. (가나다순) 전시회는 무료 관람이며, 10월 8일(토) 오후 2시-4시에 열리는 리셉션에서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보스턴 한미 예술협회는 김병국 씨가 회장을, 정정욱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에 각종 한국 관련 공연은 물론 미술전까지 개최하



강달래: Happy Birthday



유수례: Ocean Breeze-Summer Waltz



김수희: Cherry Tree



지영신: Unexpected Answer

며 한인들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한미예술협회 또는 공연 정보는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81-367-5993)

**제 4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미술전**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시 기간: 10월 1일(토) -10월 15일(토)  
리셉션: 10월 8일 (토) 오후 2시-4시  
운영시간: 월요일 휴관, 화-금 및 일요일 오후 1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한미청소년프로그램(KAYP)은 국궁 강습회를 오는 10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 국궁 강습회 10월 15일 16일 양일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청소년프로그램(KAYP)은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국궁 강습회를 개최한다.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회이니 만큼 관심있는 한인들은 이날 강습회에 참가해 국궁을 배워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려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뉴햄프셔 소재 흑셋 국궁사격장인 호석정에서 열리는 강습회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1시 두번의 강습회가 열리며 일요일에는 오후 3시 한번의 강습회가 열린다. 참가비는 \$5이며 약 2시간 동안 국궁

을 날리는 법을 배운다. 국궁은 한국의 활로 무려 158야드(150미터) 밖의 과녁에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한다. 강력한 팔힘과 정신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문의는 진태원 캠프 대장 ([captain@kayp.o-rg](mailto:captain@kayp.o-rg), 603-205-2267)에게 할 수 있다.

Fee is \$5.00 per person.  
Place: 596 Hooksett Road, Auburn NH 03032 (Ho-Suk-Jung)  
Saturday 10 AM, 1 PM.  
Sunday 3 PM for 2 hours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 면역력 개선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려움증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 상당)  
추가 증정**

+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Walmart Burlington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모든 상품 배송 관하여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보스톤 가드너 뮤지엄 연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천재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한국명, 박찰리)가 10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보스톤 가드너 뮤지엄에서 공연한다.

세계적인 뮤지션 또는 떠오르는 스타들을 초대해서 공연하는 가드너 뮤지엄의 선데이 콘서트 시리즈에 참가하는 찰리 올브라이트는 헨델의 차콘 인지마이너(Chaconne in G Major), 캐퍼스틴의 베리에이션스(Variations), 브람스의 곡들을 연주한다.

뉴욕 타임스 등 언론에서의 극찬과 과거 스승이었던 변화경 뉴잉글랜드 콘서트버터리(NEC) 교수의 극찬을 받은 찰리 올브라이트는 뛰어난 즉흥 연주로 관중을 사로잡는다. 찰리와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던 보스톤 팝스의 지휘자 키이스 로카르도 그의 연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를 수상했으며 요요마와 하버드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후 5번이나 협연, 조수아 벨, 보컬리스트 바비 맥페린 등 수많은 협연 그리고 세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살 때 스스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칠 정도의 천재성을



천재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한국명, 박찰리)가 10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보스톤 가드너 뮤지엄에서 공연한다

타고 태어났다.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한국 또한 아주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도 한국어 공부차 꼭 챙겨본다.

티켓은 성인이 27불이며 시니어 24불, 7-17세 학생은 12불이다.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티켓 웹사이트: <http://www.gardnermuseum.org/calendar/events/7295>

찰리 올브라이트(박찰리) 웹사이트: <http://www.charliealbright.com>  
bostonkorean@hotmail.com

# 한국전통음악의 테마 영적음악의 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의 정서 노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년 음악가 단체 KKM 프로젝트가 10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자메이카플레인 소재 '세인트존스 교회 (St. John's Episcopal Church)' 에서 한국 영적음악의 밤 콘서트(A Night of Korean Spiritual Music)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KKM 프로젝트는 제례악, 굿 음악 등 한국전통음악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영적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과 작곡가 홍재현을 필두로, 뉴잉글랜드음악원(NEC) Honors Ensemble에 채택된 자유과르텟이 게스트로써 합류한다.

KKM의 작곡가 홍재현 씨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우리의 전통 사상과 정서가 담겨있는 '영적음악'을 통해 보스톤지역에 한국의 예술 문화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씨는 또 "한국음악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관중의 한국음악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공연을 주최하는 청년 음악가 단체 KKM 프로젝트는, 한국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로, 2



올해 봄 첫 콘서트인 '렉처콘서트' 이후 보스톤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자메이카플레인 소재의 음악단체 'JP Concerts', Open Theatre Project'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주보스톤 영사관의 후원으로 제작된다. 자세한 정보는 KKM 프로젝트의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km-project](http://www.facebook.com/kkm-proje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켓링크: <https://www.artful.ly/open-theatre-project--1/store/events/9755>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한국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부모와 학생이 배정된 반편성을 유심히 보고 있다

## “복도를 서성이는 부모의 염려에서 새학기 시작 느껴”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7일 새학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2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9월 17일 학교 강당에서 개학식을 갖고 2016~17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했다.

“어린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따르는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복도를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해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느낌이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한다.” 며 남일 교장은 개학날 풍경을 전했다.

남일 교장은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어린 연령의 학생들의 경우 학기 초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몇 주 이내에 잘 적응하게 된다” 고 말했다.

기초-1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는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거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첫 날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참 대견했다.”

며 학교에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순 리더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학식에서 남일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 달라” 고 당부했다.

학부모회 이미경 신임 회장은 “2세 교육을 위해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하고 자녀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늘 노력하며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회 활동을 소개했다.

오전 및 오후교육부 각 반의 담임 교사 소개에 이어 전교생과 교사들은 주민정, 황규라 교사의 선창에 맞춰 ‘우리가 지켜야할 10가지 수칙’ 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급2 한라반의 김태연 학생에게 SAT한국어 모의고사 만점 표창장, 조진태 교사에게 20년 장기근속교사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송편을 함께 나누며 한

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초급/중급/고급과정 및 이중언어과정인 세종과정과 성인반까지 5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교육-교양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부모 대상 서예반과 생활영어반을 시작했고 이번 학년부터는 중국어 기초반과 동양화반 및 장구반과 오케스트라팀을 시작한다고 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2일 역사골든벨행사를, 10월 29일부터 3주간 연례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행사를 갖는다. 남일 교장은 “2세들의 교육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며 “교사로 동참하실 분은 전화 508-523-5389, 이메일 주소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로 연락 달라”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의료 통역사 무료 자격 과정 신청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어와 다른 한 가지 언어의 능통 구사가 가능한 저임금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통역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의 접수가 10월 17일일 마감된다.

비영리 단체 파운드 인 트랜슬레이션(Found in Translation)은 매년 무료 강좌를 열고 있지만 상당히 강력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무료 프로그램에는 무려 479명의 여성이 신청했지만 단 37명의 인원만 선발됐다.

선발된 여성들에게는 무려 의료 통역 과정은 물론 현장 아이 보육시설, 그리고 필요시 교통편,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과정을 수료한 후 바로 주 최소 20시간의 의료통역사 역할을 시작하도록 직업 소개까지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통역사 자격증(Medical Interpreter Certificate)을 위해 내년 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이 단체는 의료통역사 무료 과정이 점차 인기를 끌면서 1대 1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이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미 3번의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9월 27일에는 린 소재 린하우징오소리티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설명회를 진행한다. 10월 3일에는 퀸지의 토마스크레인퍼블릭라이브러리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료 통역사는 동시에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임금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이중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합법적(영주권 이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다.

프로그램에 신청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는 파운드 인 트랜슬레이션 홈페이지(www.found-in-translation.org)를 통해 알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2016 골프행사 수입/지출

Golf Tournament Fees	\$1,650.00
Dinner	\$844.91
Trophy awards etc.	\$492.00
Kimbab Snack	\$144.72
총 지출	\$3,131.63
총 수입	\$6,900.00
Net	\$3,768.40

2012 ~ 2016 한인회관 건립후원금 누적 현황

2012년도 골프대회 후원금	\$6,519.00
2012년도 건립후원금 모금 (서민전수익금)	\$1,190.00
2013년도 골프대회 후원금	\$6,506.00
2014년도 골프대회 후원금	\$5,735.55
2015년도 골프대회 후원금	\$6,048.33
2016년도 골프대회 후원금	\$3,768.40
Total (2012-2016)	\$29,767.68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는 9월 5일 열렸던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의 수입지출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골프대회로 3천7백여불 모금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골프대회 재정 공개 지난 5년 동안 3만여불 모금 성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는 9월 5일 열렸던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의 수입지출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대회를 통해 한인회는 \$3,768.40의 건립기금을 모아 적립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이래 5년동안 한인회는 \$29,767.68을 모금했다.

이번 골프대회에서 한인회는 총 골프대회 참가비 총액 \$3,200에 준하는 \$3,131.63을 지출해 골프대회 자체로는 거의 브레이크 이븐을 이뤘으며 한인들의 기부금 \$3,700이 고스란히 건립기금으로 남았다.

한편 공개된 로드아일랜드의 한인회 골프대회의 기금 모금결과 올해 기금 적립은 과거 3년 평균 6만여 불의 약 60%정도로 기금 수익이 줄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조봉섭 회장

은 웹사이트를 통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기금 모금은 1980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5년동안은 매년 추진한 골프행사로 모금한 금액이 거의 \$30,000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년 스폰서 해주신 단체와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회관모금 재정을 보고한다.” 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한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0월 10일 콜롬버스데이에 뉴햄프셔에 있는 카디건 마운틴(Mt Cardigan)으로 가을 산행을 떠난다. 카디건 마운틴은 사방으로 내려다 보는 가을경관으로 유명하다. 참가 문의는 조봉섭 회장(401-632-7401)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태양에너지 설치, 한인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업소탐방 317

솔라시티 에너지 컨설턴트 윤광현씨

Tel: 978-390-4738 (call or text)  
Email: kyoony@solarcity.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태양에너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한인들이 있다면 솔라시티 에너지 윤광현 컨설턴트를 찾으면 된다.

윤광현 씨는 “태양에너지는 무료이고 깨끗하다. 더구나 패널 설치도 본인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집에 설치해 송전 시설이 필요 없으니 일단 송전 비용은 완전히 무료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윤광현 컨설턴트의 말이다.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해 이해득실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일단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윤광현씨가 다음 세가지를 확인한다. 먼저 설치장소에 햇볕이 충분히 잘 드는지 여부, 크레딧 점점(\$650 이상이면 가능), 마지막으로 솔라패널 예비디자인 및 제안서 동의 등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디자이너가 스케줄을 잡아 실제적으로 현장 점검(Site survey: 2시간)을 하고 솔라패널 디자인을 최종 확정한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타운과 해당 전기회사에 퍼밋을 신청을 하게 된다.

윤광현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드는 비용은 전혀 없다. 트럭이 와서 설치 직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이든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이 때까지 설치를 취소하면 된다.” 고 밝혔다.



솔라시티 에너지 컨설턴트 윤광현씨

### 리스 또는 구입

만약 1-2만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자기것이 된다. 넷 미터링(Net Metering)을 통해 남은 전기를 저축해놓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이 돈은 솔라시티에서 대출해주기도 한다. 대출 이자는 연리 4.99%로 낮다.

리스를 선택하면 전기료를 솔라시티에 내게 된다. 일반 전기회사 전기료가 킬로와트 아우어 당 23-25센트 정도인데 솔라시티에 내는 현재는 13센트 정도다. 그만큼 전기료가 싸진다는 얘기가. 하지만 각 주택별로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료보다는 훨씬 절약한다는 게 윤 씨의 설명이다. 리스의 경우 솔라패널에서 생산된 만큼 내는 파워 퍼체스 플랜을 선택하거나 매달 균등하게 똑 같은 가격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리스 기간은 20년이며 이 기간 동

안 전기 생산량을 보장한다. 이 양의 95%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고치거나 솔라패널을 교체한다. 솔라패널의 수명은 30년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이 끝나고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솔라 에너지 보조 SREC(Solar Renewable Energy Credit)가 끝났다는 일부 이야기에 대해 윤 씨는 “매사추세츠 주정부 솔라에너지 보조인 SREC를 없앴다는 이야기는 없다. SREC는 매사추세츠 솔라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솔라 시티는 미국내 솔라패널 설치 업체중 가장 큰 회사로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의 자회사다. 모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외주주는 일 없이 진행한다는 게 장점이다. 테슬라에서 추진하던 우주여행 우주왕복선이 최근 폭발해 주가에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셰익스피어 여주인공들의 초상 이벤트

초상 전시, 기타 솔로, 바이올린 기타 듀오 음악회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가운데 보스톤 한인교회의 ECC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셰익스피어 여주인공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는 전시회와 음악회, 드로잉으로 구성된 이벤트로, 셰익스피어 여주인공의 초상화를 담은 오리지널 앤틱 프린트 4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두 번의 연주회에서는 존 다울랜드, 프랜시스 커팅과 같은 셰익스피어 시대 음악과 셰익스피어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바로크음악 파셀 및 20세기 현대음악 헨체 등을 기타 솔로와 바이올린 기타 듀오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연주를 맡게 된 듀오 앨리스는 독일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독고륜이 2014년 구성된 듀오이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 14회 트란실베이니아 기타 페스티벌 실내악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페스티벌 사상 최초 만점 1위로 화제가 되었다. 9월 30일 솔로 연주를 하는 독고륜은 2014년 독일에서 열린 바흐 기타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유망 클래식 기타리스트다.

이벤트의 시작일인 9월 30일에는 보스톤아트위크(ArtWeekBoston)와 함께 진행되는 드로잉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회를 보고 음악회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 그림을 전시 기간 동안 한쪽 벽면에 전시 하는 것으로 셰익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셰익스피어 여주인공의 초상화를 담은 오리지널 앤틱 프린트 4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피어를 기념하는 이 이벤트의 일부만 이 될 수 있다.

이벤트를 기획한 옹프라우시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그 당시 시대상과는 다른 강한 여성의 묘사라며, 4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들을 본래 매체인 연극과 문학이 아닌 미술과 음악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일요일 휴무) 정오에서 오후7시까지,

연주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오후 6시, 드로잉은 9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작품은 서면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jungfrau-sis.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소: Education & Community Cente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sun@bostonkorea.com



애플 사는 차기 애플워치에 포켓몬 고와 슈퍼마리오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켓몬 고 인기 식었다... 이용자수 급감

애플 스토어에서도 74일 만에 1위 뺏겨 게임 패턴 단순, 다양한 콘텐츠 필요 제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올 여름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의 인기 하락이 심상치 않다. IT뿐 아니라 정치, 경제계도 주목하던 포켓몬 고의 신드롬의 열기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포켓몬 고는 발매후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던 포켓몬 고의 애플스토어 매출순위 1위 자리를 클래시 로얄에게 내줬다. 7월 6일 출시된 뒤 독보적인 매출 1위의 흐름이 꺾인 것이다. 한 때 출시 2주만에 이용자 4,500만명을 돌파하며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추월하며 승승장구하던 포켓몬 고가 지난 달 말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인기 하락을 예고했었다. 빅토르 앤서니 엑시엄 애널리스트는 지난 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포켓몬 고는 짧은 전성기를 끝내고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포켓몬 고의 개발사인 나이언틱 랩스와 캐릭터의 상표권 보유사인 닌텐도는 여유로운

반응이다. 나이언틱 랩스의 존 행크 대표는 “가까운 미래에 배틀, 라이브 이벤트, 새로운 포켓몬 등을 선보일 것”이라 밝혔다. 닌텐도의 자회사인 포켓몬 컴퍼니의 이시하라 츠네카즈 사장은 “향후 닌텐도 차세대 게임 플랫폼에 플레이어간 대결이나 포켓몬 캐릭터 교환 기능이 들어간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원에 내줬던 게임 시장을 재탈환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포켓몬 고의 행보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닌텐도는 포켓몬 고 발표 이후 주가가 1만5천엔대에서 3만엔을 돌파하며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2만엔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 7을 발표하면서, “차기 애플워치에 포켓몬 고와 슈퍼마리오 게임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할 것”이 알려지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Equal Housing Opportunity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Thank you! Big Papi! 오티즈와 이별을 준비하는 보스턴

레드삭스 대스타의 은퇴에 각종 상품들 쏟아져 나와 은퇴시즌에 전성기 맛먹는 활약, 은퇴 번복도 관심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빅 파피(Big Papi), 보스턴 레드삭스의 정신적 지주, 역대 최고의 지명타자, 현존하는 유일한 클러치 히터. 레드삭스를 80여 년간 괴롭혔던 밤비노의 저주를 푸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레드삭스의 강타자 데이빗 오티즈(41)에게 붙는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이 수식어들은 이제 전설 속에 남게 되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오티즈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오티즈는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으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고, 그의 마지막 시즌을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는 뜨겁다.

### 레드삭스 이적, 그리고 전설이 되다

도미니카 출신인 그는 1992년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자유계약약을 시작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입성은 1996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타율 .272의 준수한 성적에도 지명타자에만 고정된 역할 때문에 팀과의 불화를 겪었다. 결국 그는 소속팀을 떠나 레드삭스로 오게 되었다.

2003년 보스턴으로 이적 후 상승곡선을 타게 된 그는 그 해 처음으로 30홈런을 넘기며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아메리칸 시리즈 MVP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2006년에는 홈런 54개로 레드삭스의 한 시즌 홈런 최고기록 경신, 2007년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내는 등, 레드삭스의 새로운 역사에는 늘 오티즈가 있었다.

승승카도를 달리던 그에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03년 실시한 비공개 검사에서 오티즈가 양성반응을 보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그는 선수생활 내내 약쟁이라는 비난에 발목잡혀야 했다. 오티즈는 레드삭스 팬들에게는 84년만에 팀에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겨준 영웅인 동시에, 타 팀의 팬들에게는 그의 호전적인 성격과 더불어 약물 복용 전과로 인해 가장 많은 욕을 먹는 등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약물 복용의 전과는 그의 선수 생활 은퇴후 명예의 전당 입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6년 작별의 준비 메이저리그에서의 스무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오티즈는 시즌 전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며 은퇴를 선언했다. 오티즈는 은퇴선언과 관련한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발이 아프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오티즈는 올해 타율 .318, 36홈런으로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거두고 있다 (사진: MLB.com)

. 정신적으로 강하면 계속 뛸 수는 있겠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은퇴 선언이 발 통증으로 인한 고통에 따른 것임을 알렸다.

오티즈가 은퇴를 선언한 뒤부터 그는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팬들도 그에게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그와 관련한 광고나 상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MLB.com의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오티즈 관련 상품만 358개에 이르며, 팬웨이 파크 한정 판매 상품까지 더하면 그보다 더 많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팬웨이 파크의 외야 광고판에 스포츠 용품 회사 마제스틱은 오티즈의 얼굴과 함께 “Thank You Big Papi” 라는 광고를 설치했고, 던킨 도너츠는 자사의 폰트로 회사 이름 대신 “데이빗 오티즈”의 이름을 새겨놓는 등 보스턴인들이 오티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열광적인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오티즈는 은퇴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못지 않은 활약을 보이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20일에는 데이브 킹맨 (당시 오클랜드 소속)이 1986년세운 은퇴시즌 최다홈런(35개)을 경신하는 36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다. 오티즈의 올 시즌 성적은 22일 현재 141경기 500타석에서 타율 .318 출루율 .404 121타점 36홈런으로, 2004년에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의 성적인 150경기 582타석 타율.301, 출루율 .380, 139타점 41홈런에 버금갈 정도로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올스타전에도 선발되었던 오티즈는 올스타전 직전에 열렸던 미디어데이에서 자신이 은퇴를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그는 기자단 인터뷰에서 “현역 은퇴를 번복하고 1년 더 뛰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 원하는 단 한가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며 마지막 현역을 포스트 시즌에서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itshunne@bostonkorea.com



오티즈의 딸이 제작한 티셔츠(사진)를 비롯하여 의류, 신발, 악세서리, 기념품 등 각종 오티즈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 관계 이상(심장, 비뇨, 기생충)
-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미국에서 가장 비싼 교외 지역 50곳 중 MA타운 9개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비싼 교외 지역은 웰슬리  
캘리포니아 주 교외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비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교외 지역 9곳이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50개 교외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침실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싱글 하우스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가장 비싼 교외 지역의 기준을 100개로 늘리면 매사추세츠 주의 타운이나 도시는 16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는 웰슬리나 캠브리지처럼 우리가 흔히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 타운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우번이나 캔튼처럼 의외의 타운도 있다.

콜드웰 뱅커 부동산 2016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타운이 가장 비싼 교외 지역 50개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2-3개 지역만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캘리포니아는 가장 비싼 교외 지역 50개 지역 중에서 30개 이상이 포함되

어 있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장 비싼 상위 11개 지역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는 타운이다.

미국에서 싱글 하우스(침실 4, 화장실 2 기준) 구입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실리콘 벨리에 있는 새러토가(Saratoga)로 평균 가격이 240만 달러였다.

콜드웰 뱅커는 보고서에서 "기술 발전은 뜨겁고, 실리콘 벨리는 더 뜨겁다"며 "최근 5년 중에서 3번이나 실리콘 벨리 지역이 미국에서 살기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교외 지역 중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웰슬리였다. 웰슬리는 미국 내에서는 13번째로 비싼 곳이며 평균 주택 구매 가격이 120만 달러였다.

웰슬리에 이어 캠브리지 (22위, \$1,057,120), 롱코드 (23위, \$1,040,290), 렉싱턴 (28위, \$988,629), 마블헤드 (34위, \$961,594), 힝햄 (37위 \$949,167), 코하셋 (42위, \$917,718), 벨몬트 (46위, \$896,684) 니드햄 (48위, \$894,533) 등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비싼 교외 지역 타운으로 꼽혔다.

jsi@bostonkorea.com



전통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웰슬리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싱글 하우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교외 지역으로 꼽혔다



레드라인은 현재 하루 평균 시간당 2만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 MBTA 레드라인 수리보다 새 전철 구입 제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 고위 간부가 레드라인 전철을 수리하지 말고 새로운 전철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레드라인의 승객 수용량을 50%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MBTA의 최고 운영책임자인 제프리 거너빌은 지난 19일, MBTA의 재정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컨트롤 보드에 새 열차 구매안을 제안했다. 현재 MBTA는 레드라인 전철 86대를 수리하는 것을 계획 중인데, 노후한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

한 것이다. 거너빌은 "우리는 레드라인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가 생각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레드라인의 수용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거너빌은 추가로 24대의 차량을 구입할 것을 제안했는데, 거너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레드라인의 승객 수용 능력은 50% 가까이 증가한다. 현재 레드라인은 하루 평균 시간당 2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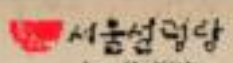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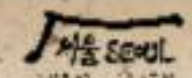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비지,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Market.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 보스톤에서 올해 말부터 무인자동차 도로 주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이르면 올해 말, 보이지 않는 운전자와 나란히 보스톤의 도로를 달리게 될 것이다.

지난 14일 보스톤닷컴(Boston.com)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월시 시장은 세계경제포럼이 보스톤 교통부와 신도시정비국(Mayor's Office of New Urban Mechanics)의 협력 하에 보스톤을 무인자동차 연구 거점도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보스톤 내에 무인자동차 도로 시험주행이 실시될 계획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무인자동차들이 보스톤의 도로를 주행할 것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 년 동안 무인자동차가 도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신도시정비국의 공동의장 크리스카터(Kris Carter)는 지난 14일 WBUR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보스톤에서 무인자동차 도로 주행 시험이 실행되면서 보스톤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 또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스톤의 경우 도로가 좁고 도로법규를 지키지 않는 주행자와 보행자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인자동차 주행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MIT의 뉴잉글랜드 교통센터 부소장인 브라이언 라이머(Bryan Reimer)는 "만약 무인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기존의 주행

자는 지키지 않는다면 도로 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가령 과란불로 바뀔 때에

무인자동차가 빨리 달리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다면, 빨리 달리지 않은 무인자동차의 잘못인지, 앞의 무인자동차가 보통의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지 않을 것을 예상치 못한 운전자의 잘못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라이머는 무인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리기 전에 이런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무인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교통법규를 정하는 것도 또한 이번 프로젝트 쟁점중의 하나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무인자동차 주행을 시험 중인 케임브리지 기반 스타트업 회사 누토노미(nuTonomy)의 CEO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는 보스톤과 같은 도시에서 무인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은 더 나은 관련법규 제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오랜 시간을 들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을 운행할 법규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통법규의 제정은 우리와 같은 회사가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톤시는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보스톤 시의 교통국장인 지나



피안다카(Gina Fiandaca)는 무인자동차 해킹 및 보안, 프라이버시, 형평성과 같은 항목을 시험할 것이라며 "현재 인간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기계가 무인화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적용될 때에 변환되어야 할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긴 하지만, 피안다카는 오히려 무인자동차가 도로위의 충돌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무인자동차는 도로위에서 규정된 속도를 위반해서 달리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인자동차가 더 효율적인 운송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틴 월시 시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보스톤과 세계경제포럼의 협력은 보스톤의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동력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송함과 동시에 더 많은 운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보스톤의 스타트업 회사들과 교육기관들은 과학기술과 로봇, 혁신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톤은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운송 기술을 리드해 갈 준비가 되었다"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sun@bostonkorea.com



피해자는 보스톤가리지 클럽(사진 속 건물)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져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 1년 만에 일어난 올스톤 총기사건, 피해자 위독

### 나이트클럽에서 시비불어, 3~5발 총성 울려 경찰, 검은색 후드티 입은 용의자 추적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올스톤 지역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사건은 18일 오후 10시 12분 경 프랫 스트리트(Pratt Street)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가리지 보스톤(Garage Boston) 나이트 클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머리에 총격을 받은 피해자는 린덴 스트리트로 도망가다 쓰러져 발견돼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인 알렉스(23)씨는 "집 근처에서 3~5발 정도의 총성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

자인 한 여성은 "연속으로 총성이 들린 후 밖을 확인해 보니 경찰은 없었고 평소처럼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검은색 후드티와 녹색 바지를 입고 빨간색 차를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다.

올스톤 지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2건의 총기사건이 있었으며, 두 사건 모두 브라이언 애비뉴와 하버드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올스톤 지역의 총기사건은 2012년 4월, 길을 걷던 인도인 유학생(당시 24)이 머리와 다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클린턴, 1차 토론 앞두고 지지율 우위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차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지지율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은 21일 NBC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8% 지지율을 확보해 41% 지지율에 그친 트럼프를 7%포인트(p) 격차로 앞섰다.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와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등 제3후보를 모두 포함한 4차대결에서도 클린턴은 43% 지지율로 트럼프(37%)와 6%p 격차 선두를 유지했으며, 존슨 후보와 스타인 후보는 각각 9%, 3% 지지율을 얻었다.

클린턴은 여전히 트럼프에 핵무기 대응(51% 대 25%), 최고사령관 자질(48% 대 33%), 이민 개혁(50% 대 39%), 테러 및 국내안보(44% 대 43%)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제 부문에서는 트럼프(46%)가

클린턴(41%)보다 더 선호됐다.

민주당 여론조사원 프레드 양은 "클린턴은 최근 대선 기간 최악의 몇주를 보냈지만, 결국 근본적인 방향은 그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낙관했다.

공화당 여론조사원 빌 맥인터프는 "트럼프는 8월 이래 클린턴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1차 토론을 앞두고 좀 더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클린턴으로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대선 승패가 좌우

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가 같은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3개 경합주에서 모두 클린턴에 앞섰다.

네바다 유권자의 43%는 트럼프에 손을 들어줬으며 클린턴을 뽑은 응답자는 40%로 3%p 뒤쳐졌다.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에서도 45%, 42% 지지율로 클린턴을 5%p 격차로 더 여유있게 제쳤다.

yeoulim@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경선후보(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92) 전 미국 대통령

## "아버지 부시' 클린턴 찍겠다 표명"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92)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대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경선에 참가했던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아버지이기도 한 부시 전 대통령은 그간 이번 대선과 관련 침묵을 지켜왔다.

19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슬린 케네디 타운센드 전 메릴랜드주 부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타운센드는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딸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시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이 힐러리에 투표하겠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타운센드는 이후 정치코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앞서 이날 메

인주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클린턴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대해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존 맥그래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맥그래스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대선 까지 남은 약 50일 동안 시민 개인의 자격을 지키고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그 기간동안에는 대선과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들 잭 부시가 트럼프 후보에 밀려 공화당 경선에 탈락한 이후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으나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전당대회에는 아버지 부시 뿐 아니라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불참했다.

baebae@news1.kr

## '국가 기립 거부'캐퍼닉 "살해 위협 받고 있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인종 차별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국가연주 때 기립을 거부하고 있는 미 미식축구 리그(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쿼터백 콜린 캐퍼닉(28)이 그간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퍼닉은 20일 "만약 살해 위협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는 셈"이라며 기립을 거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양한 경로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런일이 왜 발생한 것인지 보다 명확해지고 과장이 계속 확대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시위를 하기 전부터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캐퍼닉은 "내가 처음 일어서서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때 다른 문제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가장 최근 발생한 백인 경찰에 의한흑인 총격 사건을 언급했다.

캐퍼닉은 "이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예"라며 "흑인을 죽인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가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남성에게 총을 쏘 그를 죽였고,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매정하게 그의 주변을 걸어갔다"고 말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캐퍼닉의 시위는 다른 흑인선수들의 동참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baebae@news1.kr



콜린 캐퍼닉(28)

## 골프 레슨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j.usgft@gmail.com

# 857.600.6755

**Happy Dolls**

1. 인형 만들기

2. 인형 꾸미기

3. 인형 놀이

문의 617.248.3131 Happydollsmay@gmail.com

##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실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美 연방준비위원회 금리동결 클린턴 '불확실성' 덜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가 지난 해 12월 이래 6차례 연속 동결된 결정을 두고 "클린턴의 경제 우려 리스트 항목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표현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치를 논의하지도 않으며, 결정 과정에 정치를 고려하지도 않는다"면서 금리 동결 결정이 오바마 정부를 돕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란 트럼프 후보의 비판을 거세게 반박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클린턴 후보가 덕을 봤다는 데 입을 모은다.

금리 인상 시기가 11월 8일 대선 이후인 12월 13~14일 회의가 될 것이 유력해진 것은 최소한 대선 전까지 클린턴 후보가 금융시장 불안을 염려하지 않고 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시장 불안정은 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집권당 후보인 클린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브렛 유잉 퍼스트 프랭클린 파이낸셜 서비스의 수

석 시장 분석가는 "클린턴 캠프는 틀림없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면서 만약 금리가 인상됐다면 시장은 "완전한 혼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클린턴 후보에 마냥 희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현행 0.25~0.50%의 사실상 제로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체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실업률은 4.8%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오부초우스키 멀린자산관리회사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는 연준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매우 허약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8%로 각각 조정했다.

yjw@news1.kr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 동결(0.25~0.50%)을 결정했다

# 강달러 무너질까? 내년 환율 900원은 "글쎄..."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많고 수출 경쟁력 고려한 당국 의지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달러/원 환율 급락 가능성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달러화 강세 둔화에도 해외투자자에 따른 달러 수요와 외환당국의 방어에 힘입어 향후 1년 내 900원대까지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한다.

21일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0.50%로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연내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으로 나올 지표를 참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시장은 남은 3개월 동안 지표가 연준의 기대를 뒷받침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도 변수다.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신뢰도 확보라는 명분 차원에서만 소폭 인상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강달러 훼손에도 기초는 유지"

특히 연초부터 연내 인상에 베팅해 달러화를 매집한 세력이 대량 매도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 달러화 매수에 분위기가 쏠려 있다. 8월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569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했다. 자칫 원

화 가치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환율이 얼마나 하락할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속도가 결정지를 공산이 크다. 미국 대선과 중국 경제도 변수다.

다만 내년 환율이 900원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강달러 기초가 훼손된 것일 뿐 국내의 해외투자 달러 수요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환율 급락, 즉 원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당국이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국내에는 환헤지를 하지 않은 달러화 수요 규모가 크다"며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내년 대략 300억~400억달러의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의 해외투자 달러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환율 900원대 진입은 쉽지 않다"며 "달러화 매집 세력이 물량을 매도한 이후 흐름상 재차 강세에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내년 환율 900원대 급락 가능성 적어

역사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를 뚫고 내려간 것은 2005년 5월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월까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리먼 사태를 앞두고 '버블'이 극성이

있을 때다.

정성윤 현대선물 연구원은 "미국 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기점으로 환율 레벨 자체가 1000원선 위에서 생성돼 있다"며 "1년 시계를 두고 봤을 때 1000원대가 깨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은행의 외환딜러는 "900원대 바라봤을 때는 경기 호황기로 버블이 상당했던 리먼사태 직전이었다"며 "각국 정책이 대체로 통화완화 기조인 점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진행된 달러화 강세를 고려하면 환율 900원대 진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달러화 가치는 약 25% 올랐다. 이제 추세화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원화 강세 유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화 가치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등한 이후 조금씩 등락하고 있다"며 "큰 흐름에서 달러화 강세가 예전만 못하다면 신흥국 통화는 전반적으로 약세에서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글로벌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당장 내년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경기 부진과 환율 정책이 맞물리면 원화가 급속도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iyj@news1.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Gina Chung works hard to see that you get the service you deserve.**

- Free Checking
- Mobile Banking
- Retirement Services
- Mortgages
- Commercial Real Estate
- C&I Lending

Please come by our Allston Branch and see how Gina can serve you.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NCUA.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Newton Centre, Newton \$ 1,399,900**

넓기로운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납 약 16,000,  
대기 면적 8100 sq.ft, 1470sq. 82764



**Newton \$1,300,000**  
2가구세부, 연수상\$104,900, 대지면적4220sq ft,  
일명어로 양대 차가 있음.  
행복하기 좋은 주택 7 근접, 보스톤대학



**Newton \$1,399,000**  
2015년 새로, 최고 학교, 주차면적 6067sq ft,  
대지면적 14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Crawley (New,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로, 방5개, 화장실 2.5개,  
주차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접.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차면적 479sq ft,  
최고 보 \$ 200 수납, 1401 water(보)  
6500 평상적 대지, T bus,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새로 최고 학교, 방5개 화장실 4.5개  
주차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비무 차액, 최고 학교, 근방에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 미르재단 의혹 확산...1년간 공식활동 '전무'

뚜렷한 활동없이 두달 운영비 3억6000만원 지출  
대통령 순방때 佛 요리학교와 MOU 체결이 전부

(서울=뉴스1) 김태현 기자 = 재단법인 설립과 수백억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이 재단 설립 후 뚜렷한 공식 활동도 없이 매달 기부금 2억원 가까이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24억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립 1년이 다 되도록 눈에 띄는 공익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에 등록된 '15년도 미르재단 감사보고서 및 공시'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12월31일 총 486억원의 기부수익을 올렸고, 그중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약 3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 가운데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만 드러나 있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구성원 16명(이사 6명+직원 10명)에 대한 급여가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수수료(5300만원), 수선비(3400만원), 소모품비(3340만원), 여비교통비(2200만원

) 순이었다.

이밖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통신비, 회의비, 잡비 등도 수천만원 사용 내역이 있었다.

미르재단이 사용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무실 임차료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지급임차료(1430만원)를 사용 기간(2개월)으로 나누면 70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르재단의 공익 사업 활동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공익목적 사업활동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예술, 문화, 스포츠'라는 사업 분야만 표시돼 있을 뿐, 구체적 사업명과 실적은 나와 있지 않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활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에 참여해 프랑스의 유명 요리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다.

미르는 설립 1개월 만에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에 한식과정을 만드는 각서 MOU를 체결했고,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한·불 수교 130주

년 기념 행사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라고 말했다.

설립 1년도 안 된 재단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동행하고 그 성과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의 근거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르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상의 활동 연혁에도 에콜 페랑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백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이 뚜렷한 활동도 없이 매달 2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비용의 출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올해 1~9월에 대한 활동·지출 내역을 현재로서는 미르재단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르재단이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전문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이 사실상 최초의 공식활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실무자 간 협의만 이뤄졌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한국

문화재단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르 전·현 관계자의 해

명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olidarite4u@news1.kr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재단법인 미르 건물 입구



활동내역. (재단법인 미르 홈페이지 캡처)



##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SEP. 23RD - SEP. 29TH, 2016

## 3-WAY BURGERS FOR YOUR CHEAT DAYS!

No matter how heavy the food is, it's zero calorie, when you eat it happy and delicious!  
H마트가 소개하는 칼로리 폭탄 버거! 칼로리는 걱정마세요~ 아무리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도 맛있으면 0칼로리~!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b>Ginger</b> 생강 <b>\$0.88</b> lb.	<b>Washington Fuji Apple Premium</b>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b>\$1.49</b> lb.	<b>Packed Garlic</b> 팩마늘 5cnc/pkg <b>2\$2.99</b> pkg/for	<b>Crown Broccoli</b> 크라운 브로콜리 <b>\$0.88</b> lb.	<b>Loots Root</b> 연근 <b>\$1.88</b> lb.
<b>Oriental Sweet Potato</b> 고구마 Medium Size <b>\$1.49</b> lb.	<b>ZESPRI Sun Gold Kiwi</b>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b>\$21.99</b> box	<b>Nagaimo</b> 일본 마 <b>\$3.99</b> lb.	<b>Kabocha</b> 단호박 <b>\$0.88</b> lb.	<b>JINGA Tofu</b> 진기네 두부 Firm/Soft - 16oz <b>\$0.99</b> lb.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Sliced Beef Chuck Flap Tail 살차살 부어 <b>\$14.99</b> lb.	<b>FRESH</b> Beef Eye Round Chunk 정조려용 흉두께 <b>\$6.99</b> lb.
<b>FRESH</b>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b>\$4.99</b> lb.	<b>FRESH</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비베큐용 생삼겹살 <b>\$6.99</b> lb.
<b>FRESH</b>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b>\$1.49</b> lb.	<b>FRESH</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b>\$6.99</b> lb.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ESH</b>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b>\$5.99</b> lb.	<b>FRESH</b> Abalone 방동 전복 <b>\$19.99</b> lb.
<b>FRESH</b> Salted Yellow Croaker 저염 참조기 <b>\$5.99</b> lb.	<b>FRESH</b> SUHYUP Sea Squirt Block 냉동 핑게 1.1 lb./pkg <b>\$10.99</b> pkg.
<b>FRESH</b> SEA PRODUCTS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2 lb./pkg <b>\$7.99</b> pkg.	<b>FRESH</b> TONGTONGRAY Half Cut Swimming Crab 홍합채 절반꽃게 1.5 lb. (2.5 -) pkg <b>2\$10.99</b> pkg/for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b>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b> 코반 쌀 (황두부) 15 lb. <b>\$9.99</b>	<b>CJ Cooked White Rice</b> CJ 찰밥 박스 7.4oz x 12ea/box <b>\$13.99</b>
<b>DAECHUN Seasoned Roasted Seaweed Layer</b> All varieties - 3.7oz x 10ea/box <b>\$9.99</b>	<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00ml <b>\$14.99</b>

### Everyone loves our new flavored milk!

INTRODUCING MILK WITH A KOREAN TWIST. TRY IT AND IT WILL LOVE YOU BACK.

세가지맛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맛을 즐겨보세요!

<b>SAH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b> 4.3oz x 5ea (7.9oz) <b>\$5.99</b>	<b>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b> 4.19oz/2oz (1.4kg) <b>\$14.99</b>	<b>HAJOREUM Canned Hot Top Shell</b> 참조미 홍합이 14.1oz <b>\$4.99</b>	<b>HAJOREUM Citron Tea with Honey</b> 에센시아 홍합이 2.2 lb. <b>\$5.99</b>	<b>BUSAN Assorted Fish Cakes with Soup Base</b> 부산 어묵 14.1oz <b>\$4.99</b>
<b>유유 호떡 박스</b> CJ Korean Sweet Pancake Wheat/Black Rice/Heavy - 14.1oz <b>\$3.99</b>	<b>GLUCO Puffy Beccul Sticks</b> Chocolate - 4.57oz/Strawberry 4.19oz/2oz (1.4kg) <b>\$3.99</b>	<b>HAJOREUM Aloe Vera Drink</b> 참조미 알로에 베라 4.5oz/1.5L <b>2\$5</b>	<b>ESENZIA Grapeseed Oil</b> 에센시아 포도씨유 345ml <b>\$4.99</b>	<b>ESBENSIDE FARMS Grade A Large Eggs</b> 에스벤사이드프리 대기 달걀 180/30oz <b>2\$3</b>
<b>상기력이 리무네 드링크</b> SANGARIA Remune Drink 4.2oz/1.5L x 6ea/pkg <b>\$5.99</b>	<b>SCOTT Bathroom Tissue</b> 스캇 화장지 2000/pkg <b>\$12.99</b>	<b>WALDI Acrylic Scrubber</b> 비알디 전원용 역모질 수세미 <b>\$0.99</b>	<b>COOK KIT Vegetable Slicer</b> 쿡 키트 야채 채갈 4.5oz/1.5L <b>\$3.99</b>	<b>ZDURUSH Mug &amp; Bottle</b> 조지루시 찻잔/병 편물리 SM-PHE28V 8oz/24.5oz <b>\$24.99</b>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typos/error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nd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nded sale item. All items & locations except all major credit cards. (주) H마트 02-231-7371 H-MART 314, BOSTON SQUARE 42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3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Fri - Sat: 9am - 10pm

# '미르재단' 486억원 출연한 대기업 살펴보니...

SK하이닉스 68억 최다...대한항공도 10억 출연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재단법인 설립과 수백억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은 설립 시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미르재단은 한국의 대외적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주요 그룹의 출연으로 지난해 10월27일 설립됐다.

재단 설립시 기부목록을 살펴보면 총 486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4개사가 125억원을 기부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3개사가 85억원, SK하이닉스 68억원, LG화학·LG디

스플레이 등 LG그룹 48억원, 포스코 30억원,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28억원, GS그룹 8개사 26억원, 한화 15억원, KT 11억원, 대한항공 10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CJ E&M 8억원, 두산 7억원, 대림산업 6억원, 금호타이어 4억원, 아시아나항공 3억원, 아모레퍼시픽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금 과정에 대해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이 내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22일 한겨레는 특별감찰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안 수석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침보가 입수돼 지난 7월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hm3346@news1.kr



지난해 10월 27일 재단법인 미르 김형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에서 헌반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사업자명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사업자명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현금	68억	(주)대한항공	현금	10억
삼성전자(주)	현금	60억	씨제이이엔엠(주)	현금	8억
현대자동차(주)	현금	46억	(주)두산	현금	7억
(주)엘지화학	현금	38억	지에스칼텍스(주)	현금	6억3000만
(주)포스코	현금	30억	대림산업	현금	6억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현금	28억	지에스건설(주)	현금	5억9000만
삼성화재재해보험	현금	25억	금호타이어	현금	4억
삼성생명	현금	25억	지에스이피에스(주)	현금	3억6000만
현대모비스(주)	현금	21억	아시아나항공(주)	현금	3억
기아자동차(주)	현금	18억	GS파워	현금	2억8000만
삼성물산(주)	현금	15억	(주)지에스리테일	현금	2억3000만
(주)안와	현금	15억	(주)지에스글로벌	현금	2억1000만
(주)케이티	현금	11억	(주)지에스이엔알	현금	2억
(주)E1	현금	10억	(주)아모레퍼시픽	현금	2억
엘지디스플레이(주)	현금	10억	(주)지에스윌쇼핑	현금	1억

## '의혹 집중' 미르재단...논현동 사무실 가보니...

차분한 분위기 속 삼엄한 경비

신임 이사장은 사무실 부재

(서울=뉴스1) 김태현 기자 = 재단법인 설립과 수백억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 대한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 사무실은 동요하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미르재단 건물에 찾았다. 현관은 열려 있었지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도 없었다. 지난 2일 돌연 사임한 김형수 초대 이사장 대신 새로 취임한 김의준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무실에 없었다.

건물 2층 재단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물으려 했지만 녹록치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모든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만 받고, 이를 제외한 모든 연락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이 출근했다는 질문엔 "외근 중"이라며 이메일을 적은 쪽지를 건네고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건물 경비는 삼엄한 편이었다. 1층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은 건물을 나서던 기자에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위(2층)로 올라갔느냐"며 "함부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 아래에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에는 승용차 3~4대가 있어 사무실에 직원들이 나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변 공사장 인부들은 해당 건물에 재단 직원들이 최근 꾸준히 출입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부 박모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식사하러 나가는 걸 봤다"며 "3주 정도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목격했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인부를 제외하면 재단 건물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몇 안될만큼 유동인구가 적었다. 건물 관리인과 인부들은 최순실씨 등을 본 적은 없다고 입을 모

았다.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르'는 △한국 문화 원형 발굴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하는 문화 전문 재단으로 지난해 10월 대기업 16곳의 자금이 모여 설립됐다.

미르는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설립 허가를 신청 하루만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고, 설립 이틀 만에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16곳으로부터 기금 486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 미르재단은 지난 4월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 중구의 '한국의 집' 취선관에 프랑스·한국식 요리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문화공간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정치인들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쏟아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실세에 내는 수백억의 돈이 과연 자발적 모금이겠느냐"고 말했다.

오영훈 더민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운영재산 620억원이 일종의 비자금같은 돈이 돼 버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재단 이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는 게 연일 터지고 있는데, 이는 제2의 일해재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solidarite4u@news1.kr



## 박근혜 대통령, 비상시국에 '비통한 마음'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 야권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라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안보위기와 경주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과 국론결집이 필요한 '비상시국'에 자신을 겨냥한 각종 의혹과 폭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일 경주 지진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주민들과 약속하는 사진을 놓고 자신에 대한 비방이 제기된 사실을 놓고 박 대통령은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날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고(故)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로 오랜 지인인 최순실씨가 구입해 건넸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천거하는 등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미르재단'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해재단"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일부 매체가 이와 관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증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은 해당 재단의 문제로 전두환 정권시절 '일해재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조성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염두엔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야권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대형 약재'로 번지며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을 안보·경제의 최대 위기로 보고 있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공세'에 휘둘릴 수 없다며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

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두발언 서두에서도 "우리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굴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LISTINGS

-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 15.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 16.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 17.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 18.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 19.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 귀국 준비 반기문, 최근 뉴욕 교민에 손목시계 돌려

가족·지인엔 "구설수 피하라"...검증공세 대비하나  
정치권 "潘, 작심한 것 같더라"...출마 기정사실화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내년 1월 귀국 의사를 밝히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뉴욕 교민들에게 손목시계를 돌려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내외 정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근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그 시점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 총장이 국내 정치권 입성에 앞서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 교민 등 재미동포 민심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이 청와대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주변에 선물하는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반 총장은 앞서 가족은 물론 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언론이나 정치와 관련된 사람 만나지 말라. 구설을 오를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최근 국내 자택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손질하며, 일찌감치 귀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내년 귀국 이후 쏟아질 검증 공세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 총장의 출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미 중 반 총장을 면담한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비공식 오찬 등에서 "작심한 것 같더라"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다.

krusty@news1.kr



20일 유엔총회 개막을 기념해 반기문(오른쪽) 유엔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오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반 총장이 나란히 건배하고 있다

## 안희정, 대선 출사표 "안녕 20세기"...시대교체하겠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권의 대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다 해법'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0년 충남지사에 출마했을 때 제 포부는 '안녕 박정희'였지만 20세기 낡은 정치와 민주주의, 국가 리더십을 바꾸자는 '안녕 20세기'를 해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안 지사는 도정을 비롯해 개헌,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북핵을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전현직 대통령과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충청 대망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우선 안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도전할 뜻을 비쳤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영호남, 충청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제1공약이었다"며 "지금은 그 공약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해 안 지사는 "찬반 정치 공간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군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불순세력이라고 규정하면 국가적인 안보체계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현재 중앙 집권형 국가운영 체계를 자치분권 체제로 빨리 이행해 지역개발 이슈는 지방지도자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을 얘기할 때 어떠한 정파와 지도자들의 국면 운용 전략에 따라 타협되거나 논의되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정에서 잘한점과 아쉬운점을 묻는 말에는 각각 '사회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중앙집권화'를 꼽았다.  
야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젊은 후배와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추켜세워줬으니 저도 용기를 내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국민에게 포부를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확장성 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명절에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을 치는 어머니들에게 '모두 따세요'라고 말한다. 도전하는 모든 후보에게 국민의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예 돌려 답했다.  
반 총장을 위시한 '충청대망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여러 후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저는 도지사 선거 당시 영·호남, 충청 지역 구분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 역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에 대해 후손들이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제안한다"며 "시대의 지도자들이 부딪힌 과제를 딛고 전진한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걱정을 국민이 한다"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좀 더 따뜻하게 소통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정치입문 4년 안철수정치 극복하고 3등후보 벽 넘을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년 정도 지난 것 같다. 한 마디로 압축경험을 넘어 농축경험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계입문 뒤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4년을 이처럼 요약했다.  
관심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은 3등 후보인 그가 '농축경험'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풀어낼지에 쏠린다.  
2012년 9월19일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은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실천하겠다"며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일은 그가 현실정치에 발을 들인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정치인은 의사와 교수, 프로그래머와 벤처 최고경영자(CEO)를 거친 그의 다섯 번째 직업이다. 안 전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서울시장 선거국면에서 이뤄졌다. 자신보다 지지율이 뒤쳐졌던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면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새 정치 열망에 힘입어 '안풍(安風)'을 일으키며 등장한 그는 11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둘러싼 진통 끝 스스로 사퇴한다. 이듬해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해서는 1년 가까이 독자 창당을 준비하다 2014년 3월 '김한길 민주당'과 급작스럽게 통합하며 제1야당 대표에 올랐다.  
같은 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뒤 안 전 대표는 공천잠금 등으로 '새정치'도 리더십도 보이지 못한 채 공동대표직을 내려놨고, 지난해 말엔 문 전 대표와의 혁신 논쟁을 벌이다 결국 탈당했다. 올해 6월29일엔 '총선 홍보비 파동'이 불거지며 자신이 주축이 돼 창당한 국민의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안 전 대표는 사퇴 당시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를 내세웠으나, 이같은 행보를 거치며 붙은 게 '철수(撤收) 정치'란 꼬리표다.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기대를 접고 곁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제대로 설명해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깨달았다는 그는 인생의 키워드로 '올인'을 꼽으면서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성공확률이 낮은 일임에도 도전하고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진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야권 심장부 광주에서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대선출마를 시사한 것도 '올인'할 뜻을 비춘 것으로 읽힌다. 그는 합리적 개혁세력 규합 필요성을 내세우며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대선 완주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과제는 총선에서 26.74% 정당득표율로 '제3지대' 기반을 만들어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총선 홍보비 파동 이후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동반하락하기도 했고, 당내에는 '안철수 사당'으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4년간 합당, 탈당, 창당을 속성으로 겪었고, 들고 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기보다 '돌파'의 과정을 겪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당체제를 만든 게 하나의 실증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어젠다를 하나하나 내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18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다큐&뮤직콘서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이 대선 출마선언 4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출마선언을 기념하는 건 들었던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smith@news1.kr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 COURSE "A" \$25.95

불고기/짜들백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삼/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피전/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깃밥/안두 튀김

##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밀구이  
오살불고기

##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짜들백기/황태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깃밥/피전



영업 시간 **삼-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90-95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구) inboston  
**617.982.7118**

입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돌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쿠폰을 오려서  
제출해 주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I.T, Harve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주문전화 :  
**617.982.7118**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버클리 음대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복싱면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정부, 경주지진 피해액 85억 추산...최대 80% 국고지원

재해특별교부금 60억 포함 최대 128억 지원 예상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의 피해액을 85억원으로 추산하고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따라 추가 국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결정된 데 따라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주 지역의 피해액은 약 85억원으로 추산됐다"며 "최종 실사를 거쳐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국고지원 대상의

경우 지원율에 따라 피해액의 5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피해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0.2 미

만인 지자체는 24억원 이상, 0.6 이상인 지자체는 42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주는 재정력지수 기준(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에 따라 3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이보다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경주는 기준 피해액(30억원)의 2.5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원규모도 확대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추가 국고지원에 나선 데 따라 경주 지진피해 지원금은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경주에 40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전날 교부금

으로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85억원 피해액 중 최대 80%의 지원금(68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국고 지원금은 최대 128억원에 달하게 된다. 50%만 지원되더라도 총

지원금은 102억5000만원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신속히 재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21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중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경주 지진 및 복핵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가시화 피해규모 1654억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가시화...피해규모 1654억원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일 현재 KOTRA가 해외지사를 통해 접수받은 한진해운 사태관련 피해사례는 총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피해 유형은 △납기지연(127건)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24건) △운송비 급등(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기업의 피해접수를 전담하는 '수출입 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무역협회 운영)에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397건으로 피해규모는 1억4700만 달러(한화 1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관련 대응 자료를 보면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확한 피해규모는 어렵지만 벌써 1억47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 해운산업이 재기의 발판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박에 기선적된 물량이 54만 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라며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납기지연이나 운송비 급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임항거부나 하역중단 상황에서의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적절한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kjmf@news1.kr

## 이해찬 '더민주 복당' 초읽기...오늘 '차관문' 최고위 열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더민주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복당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내일(19일)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다"면서 "미국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들어왔고, 최고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했다.

'親 노무현계 좌장'으로 불리면서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이 의원의 복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인 전망이 나온다.

이날 최고위는 이 의원 복당의 '1차 관문'이다.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 전,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13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 당선 직후인 4월19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당헌·당규에 따른 처리시한이 경과돼 복당이 불허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복당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돼야 하고, 결과는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돼야 한다.

이 의원은 또 "탈당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해당됐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 의결이 있다면 '예외적 복당'이 가능하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의원의 복당

논의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추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전원이 親 문재인계로 분류되는데다 '투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 모두 이 의원 복당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 유세 당시 이 의원의 복당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 우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인 이 의원의 복당이 '충청대판문'을 등에 업고 있는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일축하면서 이 의원의 복당을 환영하는 언급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래 저는 이 의원을 공천하지 않은 데 대해 총선 때부터 반발한 사람"이라며 "복당은 당연한 것이고, 대선 흐름과는 그 시점이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인의 복당 의지 또한 강하다.

당선된 뒤 곧바로 복당 신청을 했던 것을 포함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70주년 제7회 봉하음악회' 중 토크 콘서트에서 복당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당시 "더민주 지도부에 이미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으니,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달 내로 이 의원의 복당이 처리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복당과 함께 세종시당위원장을 맡는 등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당과 오래 함께 해왔던 분인데다 대선(7선)의원인 만큼 대선에서 적잖은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는 지난 7월6일 지역위원장 심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세종시 지역위원장 후보로 단독 신청한 문흥수 변호사를 지역위원장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선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 의원의 복당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고려됐을 것인 시각이 많았다.

다만 이 의원 복당과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이긴 하지만 비노(非노무현)·비문(非문재인)계 인사들이 남아있는데다 조만간 당 대선 경선에 대한 물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표 외 타 대선 주자들 측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arksj@news1.kr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문화생태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70주년 봉하음악회 행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2016 마리아 행진

## Be the Church

- 일시: 2016년 10월 5-7일 (수-금) 10:00 am-1:30 pm
- 장소: 보스톤 온누리교회 (73 Pine St. Woburn, MA 01801)
- 강사: 곽성환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전 빛과 소금 편집장, 두란노 목회 연구원장 "바울 따라잡기" 저자)
- 강의 내용:

	오전 (10:00 -11:30)	오후 (12:00-1:30)
10/5 수	인생의 재발견 (행 18:9-11)	"성경 꿰뚫기"특강
10/6 목	복음의 재발견 (고전 15:1-11)	
10/7 금	교회의 재발견 (엡 1:23)	

문의 : 보스톤 온누리 교회 여성사역 eunjoo00@gmail.com

# 바울 따라잡기

1일 특별 강의

신약성경의 주요 저자이며 1세기 복음 전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바울과 그의 행적을 따라 살펴봄으로 초기 기독교의 전파과정과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대상**

-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
- 초기 기독교사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
- 장,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
-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 배우기 원하시는 분

**강의 일정**

날짜 :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시간 : 9:00am - 3:00pm  
 장소 : 보스톤 온누리교회  
 73 Pine St. Woburn, MA 01801  
 등록 및 문의 : 617-997-3548  
 bostononnuri2014@gmail.com

강사: 곽성환 목사  
 바울따라잡기 저자,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Th.M.) 출  
 현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경교육담당, 전 빛과소금 편집장,  
 두란노 목회연구원장, CGN성경특강

**Onnuri**  
 Boston Church  
 보스톤온누리교회

(생명의 삶에 10월 8일로 홍보된 일정이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http://www.masta.us)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It's a sign of great things  
to come in real estate.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지미 거라폴로 부상으로 패트리어츠 위기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쿼터백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패트리어츠가 쿼터백과 관련한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건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지난 주말 돌핀스와 홈 개막전에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가 어깨 부상으로 2쿼터가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 거라폴로가 한쪽 어깨를 부여잡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에서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패트리어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NFL 최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주전 쿼터백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다른 팀에서는 수 차례 주전 쿼터백이 바뀌어도 패트리어츠는 변함없이 브래디의 손끝에서 모든 공격이 시작되어 왔다.

브래디가 기복 없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 포지션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브래디의 백업 쿼터백들이 몇 시즌 동안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었다가 계약이 끝나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브래디가 NFL의 징계로 시즌 첫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년 동안 백업 쿼터백

으로 경기장에 출전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라폴로는 마침내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거라폴로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며 브래디가 없이도 시즌 초반을 4승 0패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라폴로마저 부상으로 향후 몇 주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로스터에서 가용한 쿼터백은 자코비 브리셋 한 명 밖에 없다. 브리셋은 올해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패트리어츠에 선발된 루키 쿼터백이다. 돌핀스와의 경기가 브리셋에게는 NFL 데뷔 무대였다.

돌핀스와의 경기에서는 거라폴로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날 때 이미 점수를 크게 벌려냈기 때문에 브리셋이 투입된 이후에도 패트리어츠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브리셋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패트리어츠는 여전히 거라폴로가 다음 경기인 텍산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거라폴로는 어깨뼈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깨 관절을 뻐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다음 경기까지는 통증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즌 초반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던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가 돌핀스와의 경기 중 어깨 부상을 당했다

패트리어츠는 당장 새로운 쿼터백을 영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브리셋마저 텍산스와의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패트리어츠는 텍산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와이드 리시버인 줄리언 에들먼을 쿼터백 포지션에서 연습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들먼은 패트리어츠

에 입단하기 전인 대학 시절에는 쿼터백으로 풋볼을 한 경험이 있다.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크리스 호건은 “언제든 쿼터백이 다치는 것을 보게 되면, 몇 초 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된다” 며 “거라폴로의 부상이 부디 심각한 것이 아니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 힘든 순간이지만, 하루가 끝날 때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일 것이고, 경기 영상

을 분석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패트리어츠의 다음 상대인 텍산스에는 NFL 최고의 패스 러서인 제이제이 와트가 있다. 그리고 패트리어츠는 백업 쿼터백이 없이 루키 쿼터백만으로 텍산스를 상대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 김현수, 4타수 무안타 침묵...이대호는 대타로 나서 삼진

강정호 · 오승환 · 최지민 결장

(서울=뉴스1) 이재상, 김지예, 권혁준 기자 = 2경기 만에 선발로 나선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끝내기 찬스에서 대타로 나섰다 삼진으로 물러났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민(25·LA 에인절스)은 모두 결장했다.

김현수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 야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2번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309에서 0.304로 떨어졌다.

김현수는 1회말 1사 후 상대 선발 클레이 벅홀츠의 초구 시속 92마일(약 148km)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했지만 2루수 정면으로 향해 땅볼로 잡혔다. 3회말 1사 1,2루에선 1루 땅볼로 돌아섰다.

이후 5회말 1사 1루에선 볼카운트 2B2S에서 벅홀츠의 5구째 시속 87마일(약 140km) 컷 패스트볼을 잘 받아쳤는데 아쉽게도 워닝 트랙에서 중견수 재키 브래들리에게 잡혔다.

김현수는 8회말 1사 후 브래드 지글러에게 우익수 직선타로 처리되면서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볼티모어는 보스턴에게 1-5로 졌다. 3연패에 빠진 볼티모어는 82승70패(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를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와 일드카드 순위는 2위다.

이대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서던 9회말 2사 2루에서 대타로 나와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대호는 9회 결정적인 기회에서 9번 유격수인 케텔 마르테 타순에 들어갔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대호는 초구 패스트볼을 헛스윙 했고, 곧바로 2구째 스트라이크를 지켜봤다. 그 사이 2루 주자 레오니스 마틴이 3루 도루에 성공했지만 이대호는 오수나의 3구째 156km 강속구를 치지 못하며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대호의 타율은 0.258로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시애틀이 12회말 무사 1,3루에서 나온 로빈슨 카노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2연패에서 벗어난 시애틀은 시즌 80승72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와일드카드 순위는 5위로, 2위 볼티모어와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김현수(28)

3게임차다.

강정호가 결장한 피츠버그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2연승의 피츠버그는 76승75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내셔널리그와 일드카드 순위는 5위로, 공동 2위 뉴욕 메츠, 세인트루이스와의 격차는 3.5게임으로 줄었다.

오승환의 세인트루이스는 콜로라도 로키스에 1-11로 크게 패했다. 4연승이 끊긴 세인트루이스는 80승72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LA 에인절스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5-4로 꺾었다. 에인절스는 66승8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공동 4위를 마크했다.

starburyny@news1.kr

#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a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uval Parish of Corpus Christi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임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환영회 : 9월 11일 주일 교중미사 후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0:00am(영어미사), 11:30am(교중미사),  
4:30pm(청년주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행 1:3)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경오봉부설회 / 청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담임목사: 박일종

주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averhill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CHU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ngjelgwochu.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송년회: 오후 2시 | 대학부요청: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연합교회: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6.4488  
http://wukcc.org

담임목사: 김현터  
8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신 말씀을 배우하여 믿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찬양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에 영광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port,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 본사에서 카드결제 관련회사에서 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it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대표이사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치킨 관련 전문업체,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톤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언제나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랑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 치킨양념소스
- 치킨간장소스
- 치킨파우더
- 치킨염지제
- 떡볶이 소스
- 찜닭 소스
- 불고기 소스
- 순두부 시즈닝
- 순두부 다대기
- 샤브 육수

- 파전 파우더
- 프렌치프라이시즈닝
- 부대찌개 소스
- 갈비소스, 제육볶음 소스
-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랑돌

파랑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버클리 음대 맞은편)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식당 호스티스와 호스트 경험자 구함.<sup>10/14</sup>  
파트타임 & 풀타임, 쿠킹 Help  
T. 781-249-5838

Chelmsfords에 있는 Care Cleaners에서<sup>9/16</sup>  
매니저와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03-401-0113

청소하실 부부구합니다.<sup>9/23</sup>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혼다 오딧세이 2010년형 99,750마일<sup>9/30</sup>  
파워도어, 판매가격 \$12,500  
T. 978-828-4850 (Luke)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sup>8/26</sup>  
좋은 위치, 9년째 영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없는게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샵 튜터링

Nabis Studio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백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과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립캘리포니아대학교	978-407-7554
국립캘리포니아대학교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구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턴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턴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턴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484-2404
보스턴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서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로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833-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은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승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인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경성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키아어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



# 영어로 만난 김소월, 현대 가곡으로 웃 입다

관객과의 소통으로 새롭게 다가온 언어와 음악

- 김소월의 <새벽> WordSong 콘서트에 다녀와서

소프라노 우상원 (Lauren Woo)

지난 9월 18일 일요일 오후, 론지 음악학교(Longy School of Music)에서 열리는 콘서트로 향하면서 나는 그 날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 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한국인이 특별히 사랑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 김소월의 그 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새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이를 미국 작곡가 3명이 작곡하고, 한국 작곡가 1명은 한국어 원시에 작곡하여 총 4개의 가곡을 미국인 바리톤과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고 했다. 또한 그냥 연주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대하여, 음악에 대하여 청중이 작곡가 및 연주자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고 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라 낯설었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의 시와 현대 가곡이 과연 어떤 조합을 이룰지, 한국인과 미국인 청중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 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

음악회는 아늑한 느낌을 주는 콘서트장인 피크먼 홀(Pickman Hall)에서 열렸다. 120여 명의 관객이 자리했다. 작곡가 하워드 프레이즌과 톰 슈나우버가 8년 전에 시작한 WordSong 그룹

이 꾸준히 활동해 온 덕분에 그들을 보러온 미국 청중들도 많이 있었다.

시간이 되자 아무런 소개나 인사의 말 없이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등장하여 세 편의 시(김소월의 진달래꽃, 금잔디, 봄 밤)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재즈 보컬을 전공하는 정원미씨가 한국어로, 작곡가 하워드 프레이즌이 영어로 한 편씩 번갈아가며 낭독을 해주었다. 한국어로 낭독되는 시를 직접 듣다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TV프로그램에 간혹 등장하는 시 낭독외에는 내가 직접 무대에서 (더구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시 낭독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낭독이 끝난 후에는 작곡가 톰 슈나우버가 그가 알게 된 김소월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한 뒤, 하워드 프레이즌이 다양성 (Multiplicity)과 직관적인 예술적 경험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객들이 조용히 몇 분 동안 그날의 주제 시(詩)인 <새벽>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이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난 후에는 시에서 느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외로 많은 한국 분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였다. 영어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숙하면 능숙한 대로 능동적으로 솔직하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았다. 미국인 청중들도 외로움,

슬픔,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갈망 등 시의 정서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다.

4개의 가곡은 먼저 프레이즌-슈나우버-김빛나-사이먼의 순서로 연주되었다. 보스턴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리톤 데이비드 크라비츠(David Kravitz)와 피아니스트 린다 오스본(Linda Osborn)이 연주를 맡았다. 작곡가들이 각자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음악으로 표현했는지 비교할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다. 데이비드 크라비츠의 한국어 디션도 몇 군데 어색한 곳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좋았고, 안정적인 발성과 뛰어난 표현력, 멋진 목소리로 네 개의 노래를 효과적으로 잘 불러주었다. 린다 오스본의 피아노는 각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으며, 때로는 고요함과 서정성으로 때로는 폭발하는 울부짖음으로 성악가와 아주 훌륭한 앙상블을 보여주었다.

쉬는 시간을 가진 후 2부는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인 관객들은 번역 시에 많은 의견을 내놓았고, 새삼 한국인들이 소월의 시를 얼마나 좋아하고 공감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네 곡의 가곡 중 어떤 곡이 어떻게 좋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순서를 기다려가며 의견을 나눠주었다. 같은 의견에는 공감하고, 다른 의견에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혹은 이런 점은 내가 몰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흥미롭게 토론을 지켜보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이바나 이(Ivanna

Yi)씨가 때때로 번역을 하며 진행을 도왔다.

어느 정도 토론을 한 후, 네 개의 노래가 다시 연주되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김빛나와 슈나우버의 곡이 먼저 연주되었고, 잠시 토론을 한 뒤 사이먼과 프레이즌의 곡이 연주되었다. 두 번째로 들으니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새로운 부분도 있었다. 두 번 듣는 것, 연주 순서를 바꾼 것, 그리고 두 곡씩 묶어서 연주한 것이 굉장한 차이를 가져왔다. 처음 들 때 전혀 느끼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두 번째 연주에서 많이 느끼고 들 수 있었다. 정말 새로운 경험과 자각이었다.

두 번째 연주 후에도 잠시 토론이 있었고, 시간이 되어 음악회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리셉션에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며 뜻깊은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누었다. 며칠 전 지나간 추석에 먹지 못했던 송편이 준비되어 있어 반갑고 행복하기도 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의미있고 즐길 수 있었던 콘서트였고, 한국인의 정서를 외국 사람의 음악을 통해 들여다 보는, 그리고 한국 작곡가의 음악과도 비교해 보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토론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콘서트였던 것이 정말 좋았다.



음악회장을 떠나며 생각했다.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새로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2시간 동안 네 곡의 가곡과 토론을 통해 소월의 <새벽>을 붙들고 있으니 마무리 할 무렵에는 그시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느껴졌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기만 했던 소리(Sound)들은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음악으로, 시로 다가왔다. 노래와 토론은 소월의 정서와 언어를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 다시 기억해 보면, 익숙한 장소와 환경을 떠나는 것이 여행인데 내가 잠시 그런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 넘어 관객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공연 예술의 생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번역과 기획으로 이번 콘서트를 제공해 주신 시인 남세교(Sekyo Nam Haines) 선생님과 WordSong 그룹,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왼쪽부터 애덤 사이먼, 데이비드 크라비츠, 린다 오스본, 톰 슈나우버, 김빛나, 하워드 프레이즌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가원기별 특별 할인**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렬 (\$20/영, \$35/아)
- 7월18일 - 9월30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 '이번주 아내가' 이선균 · 송지효 "역대급 웃긴 드라마 될 것"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의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JTBC 금토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극본 이남규 김효신 이예림/연출 김석운 임현욱) 측은 21일 이선균, 송지효, 이상엽, 권보아, 김희원, 예지원 등이 참석한 대본 리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JTBC 대회의실에서 첫 대본 연습을 진행했다. 김석운 PD는 손짓, 몸짓을 섞어가며 디렉션을 진행했고 배우들의 연기에 디테일을 불어넣었다. 아내의 바람까지 3일을 남겨 놓은 남편 도현우 역의 이선균은 '꿀성대' 소유자답게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웃음을 자아냈다. 슈퍼맘 정수연 역의 송지효는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이선균의 애간장을 녹였다.

프로덕션 PD 안준영과 메인 작가 권보영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이상엽, 권보아 커플도 재미와 설렘을 불어넣었다. 은근하게 보영의 심기를 건드리는 준영과 그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으면서 바른 말만 하는 보영의 대사들은 두 사람 사이 심상치 않은 '쌈'의 기운을 느끼게 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기와 발톱을 숨긴 내조의 여왕 은아라 역으로 부부 호흡을 맞추게 된 김희원, 예지원은 극강의 애드리브 대결을 이어갔다. 찰진 대사들 사이 적재적소에 터지는 두 배우의 애드리브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극적 웃음을 배가시켰다.

이날 배우들은 모두 "대본 연습하러 왔다가 배꼽을 도난당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균, 송지효는 "역대급으로 웃긴 드라마가 될 것 같다"며 "12부 대본까지 모두 나와 있어 퀄리티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상엽, 권보아는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더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다. 빨리 촬영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불태웠고 김희원, 예지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놀랐다. 코미디인 줄로만 알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도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는 슈퍼맘 아내의 불륜을 안 애처가 남편과 익명 댓글러들의 부부갱생프로젝트를 다룰 유쾌한 코믹 바람극이다. 내달 첫 방송.

hjk0706@news1.kr



## 수지, 공항을 환하게 밝히는 비주얼

(서울=뉴스1스타) 고아라 기자 = 배우 수지가 12일 오후 해외 일정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고 있다.

iknow@news1.kr

## '쇼핑왕 루이' 서인국, 재벌남부터 청정남까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쇼핑왕 루이'의 서인국이 시청자에게 오감만족을 선사했다. 서인국이 첫 회부터 비주얼, 연기, 코믹까지 선사하며 보석 같은 만능 배우의 매력을 발산한 것.

서인국은 지난 21일 밤 10시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 1회에서 한정판 상품을 쇼핑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쇼핑에 나서면 쇼핑 상품이 반짝이며 말을 걸어오는 명불허전 쇼핑왕 루이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럭셔리한 재벌남으로 돌아온 서인국의 화려한 비주얼은 시청자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귀여운 철부지처럼 어리광을 피우는 코믹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자라온 과거를 회상할 때면 '민보배(민고 보는 배우)'다운 감정 연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다.

서인국이 가장 빛나던 순간은 역시나 '로

코'의 한 장면이었다. 운명의 상대 복실(남지현 분)이와 TV로 첫 대면한 루이가 복실에게 첫 눈에 반한 것. 서인국은 루이의 감정을 순도 100% 로맨스에 딱 맞는 청정남의 순수한 눈빛과 낮은 표정을 잃은 표정 연기로 완성, 첫 회부터 달달한 로코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로코의 시작점까지 산뜻하게 열어놓은 만능 배우 서인국은 첫 회부터 다채로운 연기로 '서인국의 원맨쇼'를 방불케했다는 호평을 얻으며 시청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주인공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어 2화에서는 재벌남에서 꽃거지로 전락하는 캐릭터의 급반전을 선보일 예정으로 서인국의 180도 반전 연기 변신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쇼핑왕 루이'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MBC를 통해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 '무한도전'X'아수라', 新 예능 누아르의 탄생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MBC '무한도전'과 영화 '아수라' 팀이 만났다. 역대급 출연자 라인업에 기대가 모인다.

지난해 11월 '무한도전'에서는 재능 기부 경매쇼 '무도드림'에서 영화팀 막내 스태프가 출연해 '박명수 이마 때리기'를 12만원에 낙찰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촬영 당일 '무한도전' 멤버들은 배우들과의 만남에 기죽지 않기 위해 한껏 멋을 내고 등장했지만 정우성의 등장에 연신 감탄했다. 그러나 이어 등장한 황정민, 광도원에게는 못친소 가입을 권유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우성, 황정민, 광도원은 영화 속 명대사 재연과 함께 '무한상사' 연기 재연까지 선보인다. 특히 '무한상사' 연기 재연을 본 멤버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배우들은 추격전에서도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 이들은 '무한도전' 멤버들을 상대로 놀라운 집



중력과 승부욕을 보이며 한 편의 예능 누아르를 완성했다. 오는 24일 방송된다.

uu84@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9월 12일 ~ 2016년 9월 18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7.5%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0.4%
3	KBS2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20.1%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9%
5	KBS1	KBS9시뉴스	17.6%
6	SBS	추석특선대작(암살2부)	16.6%
7	KBS2	해피선데이2부(1박2일)	16.3%
8	KBS1	전국노래자랑세계대회	15.4%
9	MBC	무한도전	14.1%
10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3.9%

##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2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4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5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6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7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8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9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10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2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3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레드벨벳
04	목요일 밤 (Feat. 빈지노)	어반자카파
05	휘파람	BLACKPINK
06	If You	에일리
07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08	puzzle	씨잼
09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10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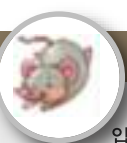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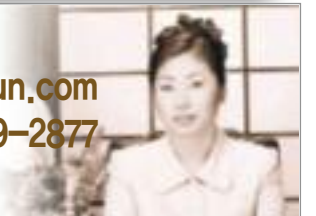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2			7					
			4	2				3
	4	7	3	9		2		1
	9	3				7		5
4								9
5		1				4	2	
7		6		4	3	1	9	
3				6	2			
					7			2

9월 25일 -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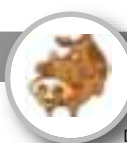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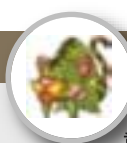
### 쥐띠 | 순간순간이 소중한

● 운수: 자신을 가장 위해주고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 금전: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보이기보다는 뭔가 허술한 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득도 따라옵니다. ● 애정: 살다보면 지금처럼 저는 시간도 아끼울 정도로 순간순간이 소중한 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5, 30일 주의.



### 소띠 |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 운수: 의욕만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전: 독불장군식의 행동은 자신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구애해 상대를 자극해서 끊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27일 길일, 25,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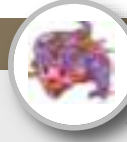
### 범띠 |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 운수: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따라주는 재물도 클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8일 주의.



### 토끼띠 |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 운수: 기쁜 일과 힘든 일이 교차되는 때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풍성한 시기이니 재물이 유리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은 계절 같은 것입니다. 한 철이 지나가면 원한도 원하지 않던 지 결국에는 다시 오는 것처럼 사랑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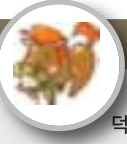
### 용띠 |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

● 운수: 억지로라도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벌써부터 열매를 따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 애정: 한편으로는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 뱀띠 | 한 번 돌아볼 필요가

●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니 평소보다 먹는 것을 더 잘 챙겨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세요. ● 금전: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1일 길일, 25,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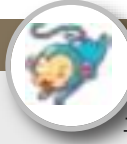
### 말띠 | 두뇌회전이 잘 되는

● 운수: 두뇌회전이 잘 되는 때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크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욱 가까워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 양띠 | 최선이 더 아름다운

● 운수: 최고보다는 최선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 금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는 그것의 속내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



### 원숭이띠 |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 운수: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혼자서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알고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는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



### 닭띠 |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 운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기회 있을 때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 금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거나 하는 등 뜻밖의 수확도 있겠습니다. ● 애정: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주도록 하세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 개띠 |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 운수: 처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 금전: 욕심이 나더라도 경제사정에 맞지 않는 투자나 지출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0일 길일, 28, 1일 주의.



### 돼지띠 |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 운수: 눈에 보이는 성공스토리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자존심을 세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니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1일 주의.

# 안젤리나 졸리 · 브래드 피트 만남에서 파경까지 12년사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부부가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는 부부 및 파트너로 근 12년을 함께해온 브래드 피트를 상대로 1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입양아 3명을 포함 총 6명 자녀를 두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는 '브란젤리나'라는 부부 애칭을 얻을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커플이다. '브란젤리나'의 12년 역사를 정리해 봤다.

▲2004년 여름: 피트, 졸리는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촬영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탓에 영화 첫 촬영 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당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상황이었다.

▲2005년 3월: 제니퍼 애니스톤이 피트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가을: 피트, 애니스톤은

그해 10월 결국 이혼했다. UNHCR 친선대사인 졸리는 11월 파키스탄에 지진구호활동을 떠났다. 피트가 그와 동행한 모습이 찍혔다.

▲2006년 겨울: 졸리가 피트와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피트는 졸리의 입양 자녀인 매덕스, 자하라를 법적으로 입양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성을 졸리-피트로 바꿨다.

▲2006년 5월: 졸리, 피트 사이에서 딸 사일로가 태어났다.

▲2007년 3월: 두 사람은 3세 아들 파스티엔을 입양했다.

▲2008년 5월: 졸리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2008년 7월: 졸리가 쌍둥이 비비엔, 녹스를 프랑스에서 출산했다.

▲2012년 4월: 두 사람이 약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트 측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날짜는 없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약속이고, 아이들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2013년 5월: 졸리는 유전검사 결과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



아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졸리, 피트는 소수 지인들과 6명 아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5월: 부부는 8년을 함께 보내온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집을 팔았다.

▲2016년 9월 19일: 졸리가 피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피트는 외신 피플지와 인터뷰에서 그가 "아이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했다.

hjk0706@news1.kr



# 고마츠 나나, 지드래곤과 동시에 스다 마사키와 열애?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지드래곤과 열애설에 휩싸였던 고마츠 나나가 스다 마사키라는 배우와도 열애설에 휩싸였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영화 '물에 빠진 나이프'에서 함께 연기한 고마츠 나나와 스다 마사키가 영화를 통해 교제를 시작했으며 지드래곤과 SNS 사진이 유출된 시점으로 봤을 때 양다리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드래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

유출되면서 고마츠 나나와의 교제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열애설이 나왔으나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마츠 나나는 이전부터 지드래곤의 팬으로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열애설은 더욱 관심을 받았다.

한편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유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tar@news1.kr

# 유소영 "손흥민과 열애설, 악플 때문에 말하기 곤란해"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겸 가수 유소영이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유소영은 22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함께 출연한 레이디 제인이 연관 검색어에 대

해 이야기하자 조심스러워했다. 과거 유소영은 축구선수 손흥민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그때 그분이 그 일로 많이 곤란했었다"며 악성 댓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소영은 "그래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다"며 답을 피했고 이후 "당시 저도 '인생 고쳐먹으려고 하느냐' 등의 댓글이 많이 달렸었다"고 덧붙였다.

naheel26@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dysington Rd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용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2  | SBS | 사랑이 오네요         |
| 3  | MBC | 옥중화             |
| 4  | SBS | 당신은 선물          |
| 5  | KBS | 여자의 비밀          |
| 6  | MBC | 다시시작해           |
| 7  | MBC | 불어라 미풍아         |
| 8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9  | MBC | 좋은사람            |
| 10 | SBS | 우리 갑순이          |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신규 방송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덕혜옹주   | 손예진, 박해일 |
| 1 | 국가대표 2 | 수애, 오달수  |

## '덕혜옹주', 쓴소리를 이긴 묵직한 울림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허진호 감독의 신작 '덕혜옹주'가 개봉 4주차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손예진의 진심을 담은 연기와 극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라미란, 정상훈, 박해일의 안정적인 연기력 그리고 실존인물이 주는 감동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였다.

'덕혜옹주'는 '부산행', '검사의전', '곡성', '인천상륙작전', '터널'에 이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6번째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남성 주연 일색의 작품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의 드라마로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뜻 깊다.

이 작품은 일본에 끌려가 평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역사가 있고 나라가 감춰던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그린다. '덕혜옹주'의 개봉 당시 손예진은 '비밀은 없다'의 흥행 저조로 다소 의기소침해 질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영화가 성공을 거두며 다시 한 번 진가를 입증했다. 또한 허진호 감독 역시 실타래처럼 얽힌 감정과 상황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특유의 연출력으로 이름값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개봉 초기 지나치게 황실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영화에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시선들은 약이 됐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고, 영화를 지키려는 관객들의 움직임에도 불이 붙었다.

uu84@news1.kr



## 수애부터 오달수까지... '국가대표2', 웃음 · 감동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국가대표2'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급조된 한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가슴 뛰는 도전을 그린 감동 드라마를 그리는 영화다.

급조된 국가대표 감독 대응(오달수 분)을 필두로 전직 아이스하키 선수 지원(수애 분)과 쇼트트랙에서 강제퇴출 당한 채경(오연서 분), 그리고 전업주부 여자(하재숙 분), 협회 경리 출신 미란(김슬기 분), 백수 가연(김예원 분), 중학생 소현(진지희 분)까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기에는 무엇 하나 어울리지 않는 출신 불문, 경험 부족, 능력 제

로인 캐릭터들의 모습이 반전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나 넘치는 의욕과 달리 선수들의 실수투성이 모습과 말만 번지르르한 대응의 어설픈 훈련 과정이 보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폭소를 자아낸다. 여기에 거침없이 질주하고 격렬하게 선수들의 몸이 부딪히는 보디체크 장면은 실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자랑한다. 이처럼 '국가대표2' 티저 예고편은 시원한 볼거리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통해 짜릿한 명승부를 기대케 하며 영화의 가슴 벅찬 감동을 예고한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stand, TBO

##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 합창대회  
최고상(혼성합창1등), 특별상 수상



# CHRISTMAS CANTATA

## 보스톤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6. 10. 13 (목) 저녁 7시 **무료입장**

Reggie Lewis Track and Athletic Center

1350 Tremont St, Roxbury Crossing, MA 02120

미국 19개주 25개 도시  
10만여명이  
기립박수로 환호하다!

"멋졌습니다. 공연 내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꼭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리앤 J. 벤티/비시 공연사립관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놀라운 그 사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소년이 공연에서 맨- 나레디이자 음악과  
학장이었을 때 이 공연장에서 많은 공연들을 봤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제가 소년이 공연에서 본 수많은 공연 중  
가장 찬율이 이는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3개월이 전부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흥분시켰습니다."  
케이 존슨/뉴크로스시장

따스하고 행복한  
가족뮤지컬



- 공연 당일 티켓을 지참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좌석은 공연시작 전 선착순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본 공연은 5세 이상 어린이만 입장 가능합니다.

티켓문의 781.333.8890  
WWW.CHRISTMASCANTATA.US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보스톤에서 만난 소월의 '시노래' <새벽>의 여운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 며칠 전 그림을 하는 동생과 연락을 하고 함께 가보자고 약속을 했다. 현대 음악과 어우러진 한국 소월의 시를 번역하여 시노래를 엮는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다. 보스톤 시내의 캠브리지에 자리한 아담하고 조용한 음악 대학(Longy School of Music)의 홀이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아는 지인을 몇 만날 수 있었다. 학교에 도착해 시간이 조금 남은 듯싶어 살짝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층 아래층 강의실을 구경하게 되었다. 작업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연습생들의 열정적인 연주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워드송(WordSong)은 2008년에 하워드 프레이진과 톰 슈나우버가 시작했다. 보스톤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의 가사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새로운 콘서트 포맷을 제시했다.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청중이 직접 의사 소통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은 규모의 살롱 연주부터 대중을 위한 교육 포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해 왔다. 보스톤 작곡가들의 모임인 워드송(WordSong)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음악회에는 작곡가 하워드 프레이진

(Howard Frazin), 톰 슈나우버 (Tom Schnauber), 김빛나(Binna Kim) 그리고 애덤 사이먼(Adam Simon) 씨가 참여했다."

새벽

김 소월

낙엽이 발이 숨는 못물 가에  
우뚝우뚝한 나무 그림자  
물빛 조차 어섬푸러이 떠오르는데,  
나 혼자 섰노라

아직도 아직도  
동녘 하늘은 어두운가  
천인에도 사랑 눈물 구름 되어  
외로운 꿈의 베개 흐렸는가

나의 님이여 그러나 그러나  
고이도 붉으스레 물질러와라  
하늘 밝고 저녁에 섰는 구름  
번달은 증천에 지새일 때

한국의 시가 번역되어 시노래로 엮어진다  
는 것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슴 설레고 심장 뛰는 일이다.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작

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청중이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픽맨 홀(Pickman Hall)에 한국인 약사

Dawn

Kim Sowohl/ Hanines

At the pond's edge  
where I stand alone,  
fallen leaves hide my feet,  
and shadows of towering trees  
rise faintly in the water's reflection.

Why, why is the eastern sky so dark, still  
so dark?  
Did a sky-man's love-tears  
become a cloud,  
drifting over the pillow of a lonely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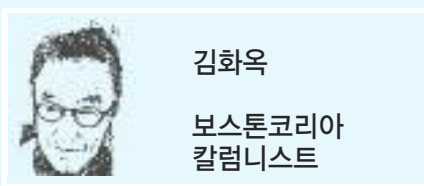
And yet, and yet, my love,  
where last night's cloud still stands  
a gentle blush spreads  
and the half-moon languishes mid-sky---

십여 명과 미국인 십여 명의 청중이 모인 조촐한 시노래의 연주회였다. 이렇게 작고한

시인 소월의 혼(魂) 어린 100년 세월의 여명이 <새벽>을 통해 열리고 있었다. 그것도 내 나라 조국이 아닌 타국의 낯선 무대에서 시노래로 불린다는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벽차오르는 감격의 순간, 감동의 찰나였다.

영어로 번역된 소월의 시 <새벽>에 곡을 붙여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린다 오즈본(Linda Osborn)과 그곡의 연주에 맞춰 노래하는 바리톤 데이비드 크라비츠(David Kravitz)의 노래는 듣는 내내 감동의 연속이었다. 더욱이 연주에 맞춰 소월의 <새벽>의 시를 그대로 노래로 옮겨 들려주는 시노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워드송(WordSong)이 끝나고 번역된 시 그리고 시와 음악에 대해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청중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은 더욱이 가슴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김소월의 <새벽> 시노래를 위한 시의 번역을 맡아주신 남세교(Hanines) 선생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김유경 선생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가지지 않은 보스톤에서 만난 소월의 '시노래' <새벽>의 여운으로 오늘을 맞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경주慶州 지진地震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발랍, 기운뎃 보인다.  
착시일 것이다. 석가랍도  
승적 보인다. 2016.9

시에들에서 살 적이다. 지진괴담怪談을 들었다. 이따금 땅이 흔들릴 것이란 반갑지 않은 경고였다. 어느 해 오전, 두사람의 손님이 왔다. 그들과 미팅중었는데, 회의실 테이블이 부르르 떨렸다. 손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잡혔다. 둔감한 나는 아직 눈치 채지 못했다. 다시 테이블이 흔들렸다. 이번엔 강도가 더 했다. 아차, 지진인가 보다. 같이 있던 일본인 동료가 말했다. '별것 아니다.' 그가 지진에 도통한 말투로 주위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이 다시 함차게 떨었다. 벽도 울렁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진 손님들이 허리를 굽히는게 보였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갈 심산이었던 거다. 일본인 동료가 외쳤다. '밖으로 튀어!!'. 허둥지둥 모두 밖으로 뛰쳐 나갔다. 밖에는 벌써 먼저 나온 회사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우리가 제일 늦게 나온거다. 치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긴 제 살기 바빴을 테니 뭐라 할말은 없다. 누가 먼저 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한숨을 돌렸다. 미팅에 동석했던 동료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었다. 지진 징후가 보이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단다. 집안에 단속해야 할게 있었다나 뭐라나. 그럴때 그가 대단히 빠르다. 내게는 첫 경험이었는데,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멀미가 날 지경이었던 거다.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이다. 보스톤에서야 그럴리 없을 테지만 그냥 읊었다.

3. 전기·가스 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 출장중이었다. 신주쿠 고층호텔에 투숙했다. 아침인데 뭔가 흔들렸다. 몸에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어지러움증인가? 잠을 잘못 잤나? 잠자리가 바뀌어 그런건가? 아직도 지진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중에 들었다. 지진이 있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내게는 대단한 경험인데도 말이다.

한국신문 어느 칼럼에서 읽었다. '일본을 돌아다니며 만난 자연은 생각보다 웅장하고 풍요하다. 그중 상당수가 화산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육중한 산맥과 기묘한 온천이 그렇다. 자연은 혜택만큼 공포를 준다. 아름다운 일본은 불명이 위에 떠있다. ... 우리의 단단한 삶터 한반도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

고마운 한반도엔 지진이 드물다고 배웠다. 그런데, 경주지방에서 큰 지진이 났단다. 강도가 제법 높았다고도 했다. 한국에선 드문 자연재해 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가슴이 철렁한다. 다보탑이 손상을 입었고 첨성대가 기울었다. 센 지진이었음에 틀림없다. 인명피해가 없어 그건 다행이다.

일본은 물결치는 물위에 떠있지 않았다. 한국에도 지진地震 물결이 닥치는가? 설마.

- 1.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테이블 밑으로 피한다.
  - 2.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욥기 9:6)



법륜스님의 영상강좌  
정도불교대학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해지는 길

# 2016년 가을 신입생 모집

### 영상강좌 내용

1학기: 실천적 불교사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부처님의 일생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2학기: 근본불교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 길)

불교변천사 (불교사, 사회/역사 변화와 불교의 변천)

### 특별 프로그램

환경/복지/통일 특강, 특강수련, 나누기수련, 기도 정진,  
수행맛보기, 봉사활동 체험

교육기간 1년 과정 (45주)

개강일 2016년 10월

입학금 \$200

장소 27 Eldred St, Lexington, MA

문의 TEL: (617) 977-4227 / Email: bostonjungto@gmail.com

# Mt. Whitney (14,495feet / 4,418m) 등정 후기 (1)

김광식

필자가 미국본토(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에서 최고봉인 Mt. Whitney(14,495feet/m) Trail에 나서게 된 것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필자와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Presidential Range며 White Mountains를 걸었던 한 동료로부터 JMT(John Muir Trail)를 종주하였다는 간단한 메일과 산행앨범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JMT는 미 서부 남북으로 이루어진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산맥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Yosemite)계곡에서 남쪽으로 Mt. Whitney에 이르는 장장 211miles(358km)의 산길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3대 트레일 중에 하나로 꼽히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외롭고 가장 행복한 길로 알려져 있다. 해발 10,000feet(3,000m)를 넘나드는 높이에 상어 이빨과 같이 솟아오른 화강암 산봉우리들의 파노라마에, 절벽, 세코이아 거목과 맑고 빛나는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산행 앨범을 보며 열흘 이상 먹은 짐과 텐트 등 무거운 배낭을 지고 두 내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하니 한시도 JMT의 모습이 필자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 캘리포니아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 이것은 필자를 사랑하는 그 분께서 필자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하루 저녁이라도 JMT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8월 29일 월요일 이른 아침, 필자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9월 6일과 7일 overnight Mt. Whitney 입산 허가를 받았다. 이미 입산할 사람들은 모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군가 취소할 때 자리가 생기는데, 워낙 후보들이 많으니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 또한 필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라 믿는다.

9월 5일 오후 3:30분에 Lone Pine이란 동네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Visitor Center에 들러 자랑스러운 과란색의 허가증과 배변 봉지 그리고 곰 방지 밥통(렌트)을 받아들고 거기서 13miles 거리의 Whitney Portal로 이동하였다.

Whitney Portal은 해발 8,360feet(참고로 미 동북부 최고봉인 Mt. Washington은 해발 6,288feet이다)에 자리 잡고 있는 Mt. Whitney의 들머리(Trail head)이다. 야영장과 주차장, 그리고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5시경이었는데 산에 내려온 사람들과 그곳에 하루 야영한 사람들로 분주해 보였다. 그곳에서 필자는 생각지도 않게 JMT 종주를 마치고 막 하산한 한국인 세 분을 만났고, 또한 야영장 텐트 자리에서 한국 분들을 이웃으로 하게 되었다. 이 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일 산행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았다.

Mt. Whitney 정상에 이르는 길은 Elevation Gain(실제로 걷는 높이)이 6,100feet이고 편도로는 약 11miles이니 왕복 22miles의 길이

다. 처음에는 정상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Trail Camp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배낭을 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정상에 오르고 내려오면서 일박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을 바꾸어 먼저 그곳에서 일박을 하고 이른 아침에 정상에 오르기기로 하였다. 나중에 이 계획이 얼마나 잘 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산행 계획 변경으로 6일 아침은 아주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아침을 든든하게 해먹을 수 있어 좋았다. 텐트를 접어 배낭에 묵고 들머리를 떠난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었다. 첫발을 땀자마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걸을 거리는 6miles, 높이는 해발 12,000feet 지점이니까 Elevation Gain은 3,400feet 정도이다. 빨리 계산해 본다. Mt. Washington은 얼마였는가? 약 4,000feet 아닌가! 그렇다면 비록 6miles이 계속 오르막이고 10,000feet 이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소증이 열려가 되었지만 해볼 만하지 않은가?

푸른 수목으로 우거진 지그재그 길을 한참 올라서니 출발한지 2.8miles, Lone Pine Lake로 갈라지는 풋말이 나타났다. 지도를 보니 이곳이 9,900feet, 높이로는 고작 1,500feet인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35과 운드나 되는 배낭이 나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산 중에서 일박하는 계획을 세웠지? 그냥 하루 산행으로 배낭 없이 간단한 점심과 간식, 그리고 물만 지고 올라오면 될 것을? 그

러나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걷는 자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앞으로 걸어가느냐, 뒤로 돌아가느냐. 길 위에 선 자에게 씌워진 것은, 마침표는 없다."(신영철, 『걷는자의 꿈, 존 무어 트레일』)는 말을 되새기며 천상 오늘 밤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쉬엄쉬엄 걸었다. 산행 길에서는 빨리 걷는 자가 바보라고 하지 않는가? 빨리 걸으면 볼 것을 놓치지 때문이다. 느릿느릿 걸어야 자신의 내면과 대화가 되는 법이다.

생각을 바꾸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하였다. 그곳에서 1mile 정도를 더 올라가니 아름다운 초원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리고 저 멀리에 화강암 벽들이 장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 더 지나니 맑고 맑은 Mirror Lake가, Trail Side 초원이,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야영할 Trail Camp에서 0.5mile 떨어진 Consultation Lake가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김광식 필자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6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 앞으로 나오는 '화랑세기'는 필자본을 중심으로 번역한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2005년)'를 인용했다. 또한 15세 풍월주 유신공조 앞부분까지 탈락된 곳은 발췌본으로 보충했다. '화랑세기'의 필사본은 1989년에 세상에 출현했다.

[... 당시 이화랑공보다 더한 미남자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건복建福 17년 원광이 신라로 돌아오자 이화랑은 풍월주 지위를 넘겨주고, 숙명과 새달 그리고 제손諸孫을 거느리고 국내의 승지를 두루 돌아다녔는데, 다섯 번 슬라에 들어가고 여덟 번 금오를 돌았다. ... 하루는 조용히 공주에게 말하기를 "신은 공주와 더불어 시축한 지 40년이고 어수魚水의 낙이 지극한 ... 까닭에 태후와 대왕을 따라 옥경玉京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다. 공주가 말하기를 "남군이 향하는 바를 접훔은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했다. 마침내 나란히 누워서 죽었다. 새달 역시 따랐다. 때는 건복 20년 3월이었다. 애공사哀公寺 북쪽 지소태후 능(결)에 장사 지냈으니, 유명遺命이었다. 아! 성대하다.]

건복이란 연호는 진평왕 6년, 584년부터 사용했다. 진평왕의 이름은 김백정이고,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이었던 보명공주와 사통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죽은 동륜태자의 아들이다. 동륜이 갑자기 '개 사건'으로 인하여 '개 죽음'을 당한 후 왕권은 동생인 금륜에게로 갔다. 그가 신라의 25대왕 진지왕이다. 진지왕은 미실이 세웠다. 당시 진흥왕이 죽기 직전 그를 모시며 새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미실은 왕이 고명으로 장손자인 백정을 차기 왕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남편 세종, 남동생 미생, 연인 설원랑 등과 모의하여 자신을 왕후로 책봉하는 조건으로 진흥왕의 둘째 아들 금륜을 왕으로 세웠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진지왕은 미실과의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도화녀와의 이야기처럼 다른 여자들과 주색에 빠져 결국 즉위한지 4년, 사도태후와 미실파에 의해 폐위당했다.

사실 진지왕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별로 한 업적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삼국사기에 나오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화랑세기와 결부시키면 화랑세기가 위서가 아니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친정을 조금했지만 재위기간 줄

곧 상대등 거칠부(황종)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리고 사도태후와 미실이 일으킨 정변 후에는 세종과 설원랑과는 화랑을 장악하고, 상대등 노리부가 대리청정을 하였다.180) 그리고 곧 진평왕을 즉위시켰다. 삼국사기의 내용은 진흥왕이 죽으면서 손자 김백정(죽은 동륜태자의 아들)이 어린 관계로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거칠부와 김무력 일파가 둘째 아들 금륜을 등극시켜서 실권을 잡았다. 그러다가 거칠부가 죽은 후 정적인 노리부 일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진평왕을 옹립하였다. 하지만 화랑세기에서는 미실의 '왕후거래'와 사도태후가 아들 백정을 보위에 올리려는 야욕과 함께 대원신통의 우두머리로서 대원신통으로 하여금 왕실의 인맥姻脈을 이으려는 즉 '골과 품'의 정쟁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권력의 추는 쉬지않고 움직이면서 폐주 진지왕의 손자가 후일 왕위에 오른다. 김용춘은 진지왕의 아들이며,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이다. 김용춘의 부인은 천명공주이다. 천명공주는 진평왕의 딸이며 선덕여왕의 동생이다.

건복17년, 그러니까 600년에 원광이 신라로 돌아왔다. 광대한 중국땅에서 불도에 심취하여 도량을 넓힌 아들이 오랜만에 귀국하였으

니 이화랑은 한없이 기뻐다. 또한 사다함이 대인의 기질을 갖추고 따르는 화랑의 무리가 많은지라 풍월주의 지위를 그에게 넘겨준 뒤, 부인 숙명공주와 첩 새달 그리고 모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3년간 신라의 명승지를 주유하면서 선도仙徒의 기상을 득도하였다. 공주를 사랑하여 궁궐을 버리고 같이 도망쳐서 산지가 40년, 그는 말년에 신선과 같이 노닐다가 죽을 날도 예측하여 장모인 지소태후와 진흥왕이 먼저 간 옥황상제가 산다는 옥경玉京으로 부인 숙명공주와 첩 새달과 나란히 누워서 603년에 죽었다.


180) 정사에는 노리부가 세종인데, 화랑세기에는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즉 노리부는 진흥왕의 왕후인 사도의 오라비로 나오고, 세종은 진흥왕과 동복이부로 나온다. 그러나 노리부의 부모가 사도의 부모인 박영실과 옥진공주인지의 기록은 없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 한국의 날 & 추석 페스티벌

## KOREA FESTIVAL

 **Saturday, October 1st, 2016**  
**11:00am~5:00pm**

**Boston Common**  
 69 Beacon St. Boston, MA 02108

 **주관: 보스톤 한인회**

행사안내전화 : 문화자 수석부회장 (978) 987-7388  
 보스톤 한인회 : 남진영 사무총장 (646) 220-3314



후원: 보스톤 총영사관, 보스톤 한인회보, 보스톤 코리아, 미주 태권도 교육 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뉴햄프셔 한인회, 보스톤한미노인회,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 국제선교회,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송창형우회, 보스톤탁구협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보스톤산악회, 보스톤축구협회, 보스톤 체육회, 보스톤 야구협회,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새마을회,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보스톤한미예술인협회, 보스톤재향군인회, 뉴잉글랜드 미국한인 시민협회, 메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代 (대)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代代)에 주(主를) 전 할 것이며 - 시편 22:30-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後代)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Posterity will serve him; future generations will be told about the Lord. - Psalm 22:30. consider well her ramparts, view her citadels, that you may tell of them to the next generation. For this God is our God for ever and ever;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 시편 48:13,14.

서울 마포구 서교동 5층 빌라의 불이 났을 때 - 9일 새벽 4시 -. 4층에 살던 안 씨는 119에 신고 했다 경찰이 나중에 CCTV를 봤더니 안씨는 빌라 건물을 몇 차례 올라다보며 머뭇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뛰어 들었다. 나중에 그는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뇌사상태에 빠진 안씨는 20일 숨지고 말았다. 불은 동거녀에 이별통보에 격분 20대 남자가 환기에 질러 3층에서 시작됐는데, 안씨는 방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질러 이웃을 대피시켰다.

덕분에 원룸(독방)이 21개나 있는 건물에서 다른 사망자는 없었다.

3층에서 불이 났다면 4-5층은 연기가 짙았을 텐데 안씨는 5층까지 올라가 이웃들을 살리고 본인은 쓰러졌던 것. 안 씨는 성우지망생으로 학원에 다니려고 지난 6월 빌라로 이사 왔으며 학원 원장은 "원장 자리를 물려주겠다" 고 했을 만큼 성실한 청년 이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수백 명 학생들을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뺨개치고 도망 간 것을 기억한다면 안씨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이웃들이 가슴을 더욱 벅차게 한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채귀레이(50)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얼굴공개는 22일 오후 범행 장소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에서 이뤄졌다. 채 씨는 성당 정문에서 현관까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태연하게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제주 경찰의 하면 비공개로 진행된 상당한

현장검증에서도 채 씨가 아무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장면을 재현 했었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채 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 됐으므로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채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한국 갤럽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의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8%로 1위에 올랐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선주자 지지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8%로 1위, 그 뒤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6%),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8%), 박원순 서울시장 (6%), 오세훈 전 서울시장 (5%), 손학규 전 대표 (4%), 김무성 전 대표 (3%), 이재명 성남시장 (2%) 이 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안철수 전 대표만이 지난달과 비교 3% 포인트 하락했다. 안 전 대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올해 처음이다.

갤럽은 "안 전 대표 선호도 하락은 국민의당 지지도 하락과 반기문 총장의 영향"이라며 "지난 5월까지의 중도층에서 안 전 대표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나 6월 이후로는 반 총장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갤럽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이 56%로 "반대" 31% 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 달 만에 찬성은 6% 늘었고, 반대는 1% 줄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 찬성 비율은 새누리당 83% 국민의당 51%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6%가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은 33%, 새누리당 지지율은 8월 9일 전 당대회 효과로 지난주보다 3% 상승한 34%, 더민주는 24%, 국민의당 11%, 정의당 4%였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 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통과, 반면 기권 3명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희 국민의당 위원이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결의안 중 '더욱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는 구절은 북한주민의 에너지, 의료부문 등 '민생보쇄' 까지 포함 할 수 있는데도 본회의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표결에 부쳐진 것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기권한 것"이라며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고 했다.

국민의 당 김종희 의원은 "실수로 기권을 누른 것이어서 국회의사국에 정정 요청을 한 상태" 라고 말했다.

代(대) : 交替也 교체야 - 번갈을 대, 대신할 대. 두 글자가 합성 돼 있다 ①人: 사람과 ②代: 取也 취야 - 취할 의. 해서 代: ① 번갈을 대. 또는 ② 대신할 대.

누가? 인자(人子) 예수님께서. 신앙인이 "생명에서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그리 대신해 주심으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에 영생(永生) 까지"를 "代" 로 처리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天父)와 연결이 되는 영원한 식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영생(永

生)의 대왕(代王)으로 모시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맞는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Jesus said to her (Martha: Lazarus, the dead man' s sist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 25-26.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27).

죽은 나사로 - 그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려 부활 시킨 다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代" 를 밝히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永生)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 요한복음 6:53 - 55.

영생의 근원이신 代의 본질을 밝히신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 - 아멘 -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티보**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KOREAN

제1회 보스톤 한인 축제

# FESTIVAL



**한인 학생회 또는 동아리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10월 1일 보스톤 커먼에서  
제 1회 한인의 날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보스톤 한인회는 한인 유학생 학생회 또는 한인 동아리의  
축제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이 미국 사회에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참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스톤 한인회**

**참가 신청 문의**

**박진영(617.750.0207)  
남병진(646.220.3314)**

강병조 변호사의 법률칼럼 - 미국세법 및 상법

# F, J, H 비자 소유 연구자 과학자들의 창업 체류 자격과 사업할 자유

강병조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1997년에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1999)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 박사 과정 중 미국으로 이민,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사(2002)를 취득했으며, 다시 카톨릭 대학 콜럼버스 로스쿨을 졸업(2011)했습니다. 강변호사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 현재 버지니아 주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Tel 703,595,2836, Ext. 101 | Fax 703,722,9168 | Website www.bjkanglaw.com 로 하시면 됩니다.

상업적 속의 생활은 과거 학문적, 과학적 열정을 직업으로 승화시키려는 연구자, 교원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꽤나 낭만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연구자 혹은 과학자들의 일상은 이런 낭만적 격리 생활에서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교원이나 과학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대표로 활동하거나,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 연구원 혹은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다양한 기업에 다종의 직위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적 지식을 가진 연구진이 이러한 기업의 고위직에 자리잡는 것은 그들의 연구 업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에서 따라서 제약, 의학, 생명 공학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은 것도 이런 이유일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이민자 출신의 연구자 혹은 과학자라면, 특히 본인의 비자가 고용 기관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동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민자 출신 연구자 혹은 과학자에게 제공

되는 비자는 해당 개인이 고용된 직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인 스스로 창업하는 것까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학자,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흔히 고용 관계 내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직무와는 철저히 차별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직무 발명 위탁 협약이나, 기밀 준수 계약에 묶여 실제로는 고용 기관에 양도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 발명자는 종종 고용 기관이 그러한 발명을 상업화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킬 때 본인은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 기관이 진행하는 매우 수동적인 수준의 사업화 노력이나, 본인이 직접 사업화를 했으면 달성했을 수준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기대는 곧 좌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이민자 출신 과학자 혹은 연구자들은 그래서, 영주권 획득을 사업 전개의 선행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용 관련 1,2순위라고 지칭되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활용하여 “사업할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길고 또 험난한 이러한 과정은 해당 개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또 정신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사업을 전개할 에너지 자체가 소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영주권 덕분에 좀 나은 곳으로 이직했다는 자기 위안을 하면 그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결국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될 중요한 공적 자산을 소모시켜 버린 손실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다행히도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현 이민법 체계가 노출하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인식했고, 결과적으로 미국도 안전국에서 최근 창업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민자 출신 연구자, 과학자, 교원 중 일 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의 혁신을 앞당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법안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상적인 자격 요건은 나름의 검증 잣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창업이 그러한 체류 자격 (“Parole”) 신청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

당 창업체의 15% 지분을 자격 신청시 보유하여야 하며, 체류 자격 보유 기간 동안 10% 지분을 유지하고, 나아가 해당 업체가 현격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유자격 미국 투자자에게 34만 5천불 이상 투자 받거나, 미 정부 기관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보조금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이 두가지 요건 모두 혹은 하나 중 일부를 만족시키며, 그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4년 오바마가 창업가 비자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이래, 연구자, 교원 혹은 과학자 중 창업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창업가 비자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에 제 안된 법안은 이러한 창업가 비자에는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리스크가 적지 않으나, 그래도 이민 창업가들에게는 꼭 시도해 볼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업가의 성취란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연구자, 교원분들 중 이민 비자에 묶여 창업의 꿈을 보류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실 만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968 블랙 파워 살루트

지난 8월 26일 전미 풋볼 리그(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가 캘리포니아의 산타 클라라 경기장에서 열렸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경기 시작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양 팀의 선수들은 기립해서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단 한 사람,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주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은 기립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캐퍼닉은 이렇게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종을 억압하는 나라의 국기를 향해 자부심을 표현하려고 일어선지 않겠다. 나에게 있어 이는 축구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거리에 내버려둔 채로 유급 휴가를 떠난다"고 말했다. 즉, 캐퍼닉의 '국민 의례' 기립 거부는 최근들어 잇따라 이슈가 된 경찰의 공권력에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편 캐퍼닉은 "이 나라에 (인종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국기를 향해 기립하지 않겠다"고도 이야기했다.

다음날 브라이언 매커시 NFL 대변인이 밝혔다시피 풋볼 경기의 개막식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NFL 선수들이 기립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 카피가 한창 유행할 때, 우스개소리로 '그런 사람이 바로 왕따'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캐퍼닉은 왕따됨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내의 인종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셈이다.

캐퍼닉의 '돌발 시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다음날 캐퍼닉의 소속 구단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측은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의례에 참여하지 않기를 선택할 권리가 개개인에게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캐퍼닉을 지지했다. 하지만 캐퍼닉의 '비애국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어쨌거나 캐퍼닉의 '시위'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1일, 시애틀 시호크스의 코너백 제레미 레인 역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의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기립을 거부했다. 레인은 "캐퍼닉을 지지"한다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이 의례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마이애미 돌핀스와 시애틀 시호크스의 경기 시작 전, 마이애미 돌핀스의 흑인 선수 네명 역시, 국가 연주 중 기립하는 대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같은 날 애로우헤드 스타디움에서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코너백 선수인 마커스 피터스가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검정색 장갑을 낀 오른 손 주먹을 들어 올린 채로 있었다. 그러자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다른 선수들은 서로

의 팔을 붙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의 행동에 연대를 표시했다. 그날 밤, 아리조나 카디널스와 의 야간 경기를 치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의 마르텔루스 베넷과 데빈 매커티도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각각 검은색 장갑, 흰색 장갑을 낀 채로 주먹 쥔 손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캐퍼닉이 국민의례 기립 거부를 통해 시작한 NFL 흑인 선수들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의 한 역사적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 대회 남자 육상 200 경기의 시상식, 금메달과 동메달은 미국의 흑인 선수인 토미 스미와 존 카를로스가 각각 차지했다. 메달을 수상하기 위해 시상대에 오른 이 두 선수는 곧 관중의 이목을 끈다. 목에는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신발을 신지 않은 발에는 검은 양말을 신고 있었다. 이내 미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두 선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다.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쥔 오른 손을 들어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국가 연주가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빈곤과 소외, 여전한 차별의 탓에 놓여 "이류 시민" 취급을 받고, 빈번한 경찰 폭력의 대상이 되던 흑인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해있었다. 이무렵 블랙 파워 운동(Black Power Movement)이 발생했다. 블랙

파워 운동의 주창자들은 기존의 온건한 노선의 민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제 공민권이 아니라 인권을 주장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흑인들의 자결권과 완전고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요구했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슬로건이 암시하듯 백인 체제에 순응하기보다는 흑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정서도 블랙 파워 운동의 자양분이었다.

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의 스미스와 카를로스가 보여준 퍼포먼스의 맥락은 바로 블랙 파워 운동이다. 신발을 신지 않은 검은 양말은 흑인의 빈곤을, 스카프는 자존감을, 그리고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 쥔 손은 블랙 파워를 상징하고 있다. 관중은 야유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흑인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

은메달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던 또 다른 육상선수는 피터 노먼이라는 호주인이었다. 백호주의가 팽배했던 호주 역시 인종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 노먼은 스미스와 카를로스의 저항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과 나란히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올랐다. 흑인도 미국인도 아니었던 노먼은 이 일로 인해 평생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연대는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한국방송 서비스인  
티보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유사서비스에 주의 하세요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BO**  
티보플레이

#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하는 뉴스

##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OCN net MBN Olive XTM Story On Style CH CGV

###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b)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ro)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달라스 (News Korea) 9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아마켓) 210-445-1535 엘파소 (아리랑마켓) 209-756-1743
- 동부** 애틀란타 (SNC Tech LLC) 678-584-9514 오하이오 펜실 (주간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U Computer) 709-942-5822  
보스톤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차로 (Kyocharo) 917-685-955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8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6년 9월 넷째주)**

● 이민 사기

얼마 전, 전화로 이민국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하시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몇 주째 이민국에서 이러한 전화사기에 대해 주의하라는 공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철저히 (?) 준비한 사기단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국 또는 정부에서 전화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국은 전화로 수수료 등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사 진짜라고 생각되도 만약 돈을 요구하면 사기가 100% 확실합니다. 이민국은 이런 경우 통화 중이라도 바로 전화를 끊으시길 권고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H-1B 신청서 반송

올해로 삼년 연속 H-1B 신청이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부득이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신청서들만 심사를 받게됐고요. 올해는 사상 최대인 약 23만 6천여개의 신청서가 4월 첫째주에 이민국에 접수됐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7월 8일로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모든 신청서들의 반송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직

까지 이번 4월에 H-1B를 신청하시고 아무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담당 변호사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와 연락처는 아래 주소로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returns-unselected-fiscal-year-2017-h-1b-cap-subject-petitions>

● 이민국 방문 약속 (Infopass)

신청된 이민관련 신청서에 대한 조회 등을 위해 직접 이민국에 방문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런 방문을 하시려면 Infopass 라고 불리는 온라인 작업을 통해 약속을 만들면 됩니다. 최근 이민국은 Infopass 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상당히 이용이 편해졌습니다.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다른 한국어로 번역된 사이트들 (한국말인데 무슨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한국어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돼 있으니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사용해 본 후기입니다)

Infopass 는 아래 주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 투자 영주권 (EB-5)

이번 주 발표된 투자영주권 진행속도를 보

면 지난 7월 31일 현재 투자 영주권의 첫 단계인 Form I-526 에 무려 17.1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번 발표에서 기록한 16개월을 또 갱신한 것으로 계속해서 서류심사 기간의 최대기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육군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 군대를 다녀와야 영주권이 나올까 말까 한 기간이네요.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작업 (From I-924) 은 무려 2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관 (Regional Center) 에 대한 승인심사는 계속 단축되어 현재는 11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투자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들은 점점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영주권 심사가 지체되면서 투자금이 투자처에 쓰이지 못하고 묶여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Regional Center 에 투자된 투자금은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 될 때 까지 (Form I-526 이 승인될 때까지) 쓸 수 없는 조건들을 걸어 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쓰이지 못하고 너무 오래 묶여있으니 Regional Center 의 사업이 제대로 될리가 없겠지요. 또한, 투자금 회수 보장

도 문제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장 자체가 합법이 아닙니다 (투자이민 조건하에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으로 이러한 보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제때에 쓸 수 없으니 비지니스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겠지요. 그러니 투자금 회수 보장 약속을 지키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비지니스의 더딘 진행과 돈이 궁해지다 보니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두 번째 작업인 Form I-924 단계에서 수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의 도움 없이는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투자금 회수 보장을 취소하게 하거나 Form I-924 단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못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댓가로 말도 안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횡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니 영주권 자체도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투자영주권 특히 Regional Center를 처음 재정할 때 이렇게 되리라고 계획하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영주권 (EB-5) 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투자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민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쭙어보면 스폰서를 구하는 것과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이 '국익에 준한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동 인증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 '국익에 준한 면제'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석사학위 이상 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의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1998년에 있었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를 가이드라인 삼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민신청자를 평가합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가 상당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

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일을 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적 규모가 아닌 국가적 규모의 영향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노동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케이스 진행 경험을 고려해보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세 번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서류요구(RFE)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익에 의한 면제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의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비자(I-140)와 영주권 신청(I-485)이 동시에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혜택이 큼니다. 부부인 경우 둘 다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더욱 까다롭게 내용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류들 중에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민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라면 그러한 추천인의 추천서는 승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의 논문, 연구 발표, 잡지에 실린 글들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영주권이 승인된 직업군으로는 컴퓨터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가, 엔지니어, 음악가, 투자분석가, 의학 관련 연구원, 과학 분야 연구원, 그리고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는 주관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이 가능한 분들 가운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혜택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관련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작성에 고려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롬렛(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한국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대학교 근처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우스터 지역 런드롬렛 연매상 \$225,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렛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렛+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욱 성장한  
보스톤 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톤 교육원 임직원 일동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